

# 統一新羅時代의 龜趺와 螭首

李 浩 官

## 一、序 論

統一新羅時代에 發達하였던 石造彫刻의 造形物을 살펴보면 우선 石塔 石佛을 위시하여 石燈 石碑 石槽 幢竿支柱 등을 비롯한 수많은 石造美術品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遺存되어오는 歷史的 遺物들이 하나같이 美觀하고 美麗한 手法과 樣式을 갖추어 統一新羅時代를 代表할만한 藝術品이라 할 수가 있다.

특히 古新羅時代의 高度로 발달한 金屬工藝品에 비해 손색없이 石造物에서도 그 藝術性和 美觀한 容姿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現存하는 遺物들에서 屢히 볼 수 있다.

石塔과 石佛 石燈等은 이미 여러번의 學術論文과 著書 등에서 樣式的 優雅性 그리고 形式上的 特徵과 發展變化 過程을 밝히고 있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古代史를 연구하는데도 큰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술사 및 金석학의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石碑에 관해서는 個個 遺物에 對한 考證과 部分的인 論證이 있었을 뿐 系統적이고 全體的인 面을 通觀하여 體系的으로 整理究明한 바 없어 筆者는 미려하나마 이면에 유하여 石碑의 形成 變遷만을 들어 所見을 정리,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現在까지 遺存되어 내려오는 古新羅時代부터 統一新羅時代까지의 石碑는 주로 佛教關係의 塔碑와 陵墓앞에 세우는 墓碑였으며 그 외에는 巡守碑, 拓境碑 등이 있으나 國境을 경계로 하는 巡守碑等은 古新羅의 眞

興王代의 咸鏡南道 黃草嶺巡守碑와 摩雲嶺碑 그리고 北漢山巡守碑 昌寧橋上洞拓境碑와 忠北丹陽赤城碑等 불과 5個以上을 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 建立되어 유존되어 오는 塔碑와 螭首를 찾아하고 있다.

三國時代의 石碑는 古新羅時代의 眞興王巡守碑를 비롯한 黃草嶺磨雲嶺碑와 昌寧橋上洞拓境碑等과 滿州輯安縣에 있는 高句麗의 廣開土王碑와 忠北中原의 高句麗碑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연의 自然石이 아닌 文形의 石材로 다듬어 兩面을 연마하거나 또는 四面을 연마하여 그 연마된 石面內에 區劃線을 설정하거나 方格의 劃間을 설정한 후 刻文한 簡單한 手法의 石碑였으며, 碑座역시 自然石 그대로에다 設定하거나 아니면 上層위에 平凡하게 建立한 것이 通例이었다. 이러던 것이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이후인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와서는 從來의 石碑樣式이나 形式과는 달리 突然히 唐의 石碑形式과 樣式을 그대로 輸入 模倣하여 方形의 大좌에 龜趺하는 것을 얹히고 그 위에 碑座를 設定하고 碑身을 固定시켜 세우는 것과 동시에 碑身上端에는 螭首라는 것을 갖추는 形態로 급격하고도 돌연변이적인 石碑形成으로 變化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변화를 이룬 石碑形式과 양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方形의 臺石위에 四足を 힘있게 뻗어 臺石을 받치고 있는 龜趺가 놓여있고 龜趺自體도 六角形의 龜甲으로 덮여있는 塔圓형의 背面龜甲위에 長方形의 碑座를 設定하고 그 碑座위에 또다시 長方形의 別個石으로 된 碑身을 세웠으며 세워진 비신 상단부에는 2마리 蟠龍이 서로 엉겨 비신을 물어 올리는 듯한 힘찬 조각이나 아니면 蟠龍이 對稱적으로 마주보며 爭珠하는 듯하게 蟠龍身을 사실적으로 조각하여 독특한 螭首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形式과 樣式을 갖춘 石碑가 統一新羅에서 부터 始作되어 後世에 이르기까지 傳來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石碑形態로 固着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三國時代의 簡單한 石碑形式이 이렇게 統一신라 이후 唐碑의 영향이래 종래의 形式에서 벗어나 突變的이고도 急進

的으로 발달變化된形式과樣式을 가져 오게된原因이 어떠한 것에서 부터 연유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중국의 석비는 周代부터 시작하여 여러 王朝를 거쳐 장구한 歷史를 지내오는 동안 점차 형태와 양식이 변천하여 唐代에 이르러 螭首와 碑身 題額 龜趺를 갖추는 石碑로 발전하고 定着하여 왔으며 또한 이 양식과 형식이 後世의 石碑까지 전래되는 規範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石碑가 이와는 달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필자의 所見으로 생각컨데, 自然石이나 圭形石으로 된 石碑에서 統一期 石碑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한단계의 과도적인 石碑의 도다른 형식이 있었지 않았는가하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現在까지發表된 著書나 論文等에서는 三國時代에 使用한 自然石이나 圭形의 石碑가 統一新羅에 들어와서는 唐의 石碑를 그대로 수입하여 龜趺와 碑座, 碑身, 螭首等을 갖춘 唐代 石碑의 形式을 모방하게 되었다 하는 說이 있을뿐① 과도기적인 과정의 變遷石碑에 對해서는 확실한 論證이 없다.

이런점으로 볼때 石碑발달에 있어 과도기적인 중간과정의 석비가 아직까지 國內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여기서는 현재 유존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비등에 對하여서만 대략 고찰하면서 그 양식과 형식변천을 살펴보고자하며 또한 우리의 석비와 깊은 관계를 가진 중국의 석비발달과정도 대략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國內에 殘存되어 오는 三國時代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石碑를 살펴보면

- 高句麗 廣開土王碑
- 中原高句麗碑 等
- 古新羅 北漢山眞興王巡守碑
- 昌寧橋上洞 拓境碑
- 南山 新城碑
- 忠北丹陽赤城碑

威南黃草嶺巡守碑

百濟 沙宅智積碑

統一新羅時代

太宗武烈王碑 慶州西岳里 六六一年

唐劉仁願碑 扶餘博物館 六六〇年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碑 南原郡 七C 후반

西岳里龜趺(傳金仁問碑) 七C경

靈巖寺址龜趺 慶南陝川郡

慈藏寺阿彌陀佛造像事蹟碑 慶北月城郡 八〇一年

昌寧塔金堂治成文記碑 慶南昌寧郡 八一〇年

雙峰寺澈鑑禪師塔碑 全南和順郡 八六八年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八八四年

禪林院址弘覺禪師塔碑 江原道襄陽郡 八八六年 추정

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 慶南河東郡 八八七年

月光寺圓朗禪師塔碑 景福宮(原在忠北堤川郡) 八九〇年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忠南保寧郡 八九〇年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 全南南原郡 九C 후반

鳳巖寺智澄大師寂照塔碑 慶北聞慶郡 九二四年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 景福宮(原在慶南昌原郡) //

四天王寺址碑龜趺 慶州市排盤洞 七C

皇福寺址碑龜趺 // 九黃洞 九C

高仙寺址誓幢和上塔碑龜趺 慶州博物館 八C

聖德王陵碑龜趺 慶州市朝陽洞 八C

興德王陵碑龜趺 安康邑六通里 九C경

崇福寺址碑龜趺 慶州博物館 九C

昌林寺址碑龜趺 慶州市 九C

이상 30여개의石碑와龜趺가遺存되며 오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統一新羅時代의佛敎關係의塔碑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뿐 陵墓앞에 세운石碑는 대개龜趺만이 남아있는 실정으로서 확실한 건립年代를 고증할 수 있는碑身이流失되어龜趺의彫刻樣式과形態로他石碑와文獻資料들과比較하여時代를 대략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 석비와 귀부가 唐代의 석비형식과 양식을 모방하여 되었다면 우선 중국석비의 기원과 양식변천에 대한 것을 대략 살펴본 후, 개개의 석비를 소개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 二、中國의石碑

中國의石碑는② 그起源이 어디에 있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없으나 대략 後漢의劉熙의釋名, 唐代封演의封民間見記, 宋代洪迂의隸續散見 그리고 近世清代의顧炎武의金石文字記, 阮元の山左金石志 등에서 詳論한 것에 의하면 中國古代 周代부터 大廟에서祭祀를 지낼 때의 희생물을 위해 廟庭에碑를 세웠다는 一說이 있는 반면 葬禮를 지낼 때 棺을墓穴內에下棺하기 위해 墓穴의兩側에上端이正三角形과 같이尖形으로된圭角의碑를 세워 그 세운碑의中心線上端中央에圓形의구멍인穿이라는 것을貫通되게 뚫어 그圓孔속에棒을 관통시켜서 양측에 걸치게 하고 이棒에다 새끼를 갈아서 墓穴內에棺을下棺하는데 쓰였던 것에서부터碑의起源이 있었다고 하는說等이 지금까지 傳해내려 오고 있는 一般의인通說이다.③

또한 끝이尖形으로된圭角의碑頭部가 점차 발전 변모되어尖形이半圓首로 되며 이렇게半圓首로 된 것이暈으로 발전하고 이곳에龍紋이나 다른 것을彫飾하는 것로부터 후세의螭首로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通說에 의거 中國의漢代石碑形式과三國時代와西晉時代의石碑 그리고南北朝時代의石碑를 비롯하여 唐時代의石碑樣式을概觀해보면는

### ① 漢代의石碑形式

앞에 잠깐 밝힌 바와 같이 돌에文辭를刻記하여記念하는 것은 일찍 周代에서부터始作되었다. 그것은孔子의 글씨라고稱하는延陵秀子の墓碑 등에서 볼 수 있고 石鼓에刻字를 한 것은先秦時代에 벌써 나오 있으며, 秦에서는嶧山, 瑯琊臺, 會稽, 泰山 등의 正確한刻石에서 볼 수 있다.

前漢時代에 들어와서는魯孝王의刻石과居攝墳壇의刻石 등에서 전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단순한石物에文辭를刻記한 것을 넘어 소위石碑의體制를 구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나遺物로서石碑의形態를 갖추는 것은 後漢時代부터始作되었다고 본다.

歐陽修의集古錄에「後漢以後始有碑文欲求前漢時碑碣不可得是則冢墓碑自後漢以來始有也」라記錄된 것으로 확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後漢末期에 와서는 더욱 많이石碑가 세워졌었으나遺存하는遺物은 적다고 한다.

漢代碑는 보통碑身 밑에「跌」라는 것을 갖춘 것으로簡單하게 되어 있는樣式이었다. 또한碑身에는文章이나題額等이刻記되어 있고跌는 땅위에 옆으로 하여碑身을 받치는 자리로 쓰여왔다.

「跌」.. 당시의跌는 대개方跌로서平面長方形이고上面은 약간 경사지게 하였으며 높이가 다르며 모서리는 수직단면으로 하였다 四川省雅安에 있는高碑에 있어서 方跌의斜面部에 해당되는 앞부분中央에圓形의環帶를創出하고 이를中心하여左右에龍과虎를대칭적으로 배치하여 마치靑龍白虎가爭鬪하는形像을彫飾하고 있다.

碑身.. 跌위에 세워지는 것으로長方形으로서 그碑身頭部는圓首로 되는 것과圭形으로 되는 2가지 양식이 있는바, 2가지 양식 모두碑의上端部分 가까이에「穿」이라는圓孔이碑面을貫通하여設定되어 있고 그리고 이穿의 상단에「額」(후에題額이 됨)을 다시設定하고 있다.

특히圓首로된碑에서는碑頭가半圓형으로 된 것에 보통「暈」이라 칭

하는 것이 周緣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暈에는 왕왕 龍을 조각하는 예가 있으며 또한 暈의 兩端에 龍首를 만들어 彫飾하는 예도 있다.

碑文.. 碑文은 穿아래 陰刻으로 보통 八分書로서 刻出되어 있다.

裝飾.. 장식은 비신의 외곽 周緣部分을 희귀한 文樣으로 彫飾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며, 그 예로서 曲阜文廟孔君碑碣의 波狀文、 梧臺里石社碑의 鋸齒文等을 들 수 있고 또한 白石神君碑(光和六年 AD 一八三年)의 碑頭인 暈이라고 하는 兩端에 龍의 形態를 彫刻한 것도 나타나고 있고 張遷碑의 圓首 頂上部에는 左右에 對稱의 形으로 새를 彫刻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四川省雅安의 高頌碑(通安 一四年 AD 二〇五)에서는 暈이 龍으로 변하고 있다. 또 어떤 것은 三마리의 龍들이 서로 엉켜서 오르고 내리는 듯한 진귀한 形으로 장식하는 것도 있다. 그 以外에 四川省益州地方의 碑에서는 往往 四神圖를 碑面에 彫刻하는 것이 보이며 隸續卷五에 記載되어 있는 益州太守無名碑에서는 碑의 윗쪽에 朱雀、아랫쪽에는 元武(玄武)、左右에는 龍과 虎를 彫飾하고 柳敏碑、六物碑、暈排六玉碑、沒字碑、沈府君神道碑等에서는 碑의 윗쪽에는 역시 朱雀、아랫쪽에는 元武(玄武)를 彫飾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로 볼 때, 朱雀、龍虎等은 碑身上端의 碑頭部分인 暈이라고 하는 곳과 碑身周緣에 彫飾하는 方法이 後에 螭首라는 起源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보며 또한 碑身下端에 四神圖에서 보이는 玄武를 배치한 것이 結局 현재의 龜趺로 된 시초가 아닌가 본다.

이와같이 碑는 後漢時代에 일어나, 그 樣式과 裝飾이 급속히 발전을 거듭해 後世石碑의 螭首와 龜趺를 이루는 표준으로 되어 왔다.

### ② 三國 및 西晉時代의 碑

後漢時代에는 葬禮를 크게 지내는 厚葬 풍토가 있어 墓앞에 훌륭한 石碑를 세우는 것이 당시의 流行이었다.

그러나 西紀二〇五年 建安一〇년에 曹操가 墓碑를 禁하고 이로 인해 魏의 文帝가 장례를 간단히 치르는 薄葬의 칙령을 발표하면서 부터 墓

碑를 세우는 것이 드물게 되었고 또한 이 결과 碑의 發達樣式도 일단 쇠퇴해지고 樣式을 비롯한 手法의 竟匠等이 後漢 때와 달리 쇠퇴하여지며 간단한 것으로 되어왔으며 또한 前代의 制度를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 ③ 南北朝時代의 碑

南北朝時代의 文化는 南北이 共通되는 점도 있는 반면 서로 相異하는 면도 나타나며 北方의 漢民族의 文化와 藝術이 江南으로 移住하는 동시 黃河流域에 所謂五胡十六國이 서로 興亡을 거듭하면서 盛衰榮枯의 변천이 거듭됨에 따라 南朝에서는 지금의 南京을 中心하여 宋、齊、梁、陳等의 東晉의 文化를 계승하면서 풍요롭고 찬란한 文化를 발휘하는 반면 지금의 洛陽에 도읍한 北魏 역시 급속한 文化의 발달을 보게 되므로 南北朝가 相互對稱의 獨特한 文化양식을 갖게 된다. 또한 石碑의 양식과 수법도 역시 漢代碑의 양식에 바탕을 두면서 특색있는 것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

대략 南朝碑는 樣式이 一定하여지면서 技巧가 역시 精鍊하여 手法이 極에 달하는 反面 北朝碑는 강직하고 渾樸한데서 雄麗한 것으로 되어가며 그 手法은 점점 진보하여 隋가 南北을 통일한후에도 양식과 수법이 계승되어간다. 또한 唐에 들어와서는 完全한 美의 極致에 달하게 되나 반면 南朝碑는 기교면이나 양식면에서도 北朝碑에 비해 손색이 없었음에도 이를 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南朝의 滅亡과 함께 運命을 같이하여 영원히 소멸되는 데 끝이고 말았다.

#### · 南朝時代의 碑

南朝에서는 代表的으로 劉宋碑(AD 四五八年 太明二年)을 들 수 있으며 金石續編에 記錄된 것을 보면

「額高二尺八寸 上刻兩螭龍 下中穿徑五寸六分 左右日月各徑五寸 日中刻跋鳥 月中刻蟾蜍 穿上高八寸 廣一尺五寸 六行 行四字 題宋故龍驤將軍 護鎮蠻校尉寧州刺史邱都縣 侯襲使君之碑廿四字」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기

록에서 南朝碑의 최초에 해당되는 것으로 穿의 위에 長方形的의 題額을 만  
들고 題額 위인 碑首에는 2마리의 蟠龍을 彫飾하고 左右에 三足鳥와 螭  
蝮을 日月象間에 彫飾表現하고 있는 樣式을 갖추고 있으며 梁나라의 臨  
川靖惠王蕭宏碑等에서는 처음으로 龜趺를 구비한 형태로 이 龜趺위에 비  
신을 세우고 螭首를 갖추는 형식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서 보이는 龜趺  
는 漢時代 碑石의 밑에 龜蛇印 玄武를 彫飾한 것보다 더욱 발달한 寫實  
적인 거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碑身의 상단에는 좌우에 각 二마리의 蟠龍을 彫飾하여 龍의 몸  
체가 서로 엉켜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量에 해당되는 것이 漢代 碑石  
과는 달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半圓頭의 碑首중앙에 穿이라 칭하는  
圓孔 주위에 蓮花를 彫飾하고 또한 左右에 蟠龍을 彫飾하였으며 穿의 上  
部部分에는 鬼形을 나타냈고 穿 밑에는 寶珠를 또한 나타냈으며 이를 중  
심해 左右로 忍冬꽃을 飛雲化시켜 彫飾한 것은 漢碑에서 볼 수 없는 유  
대를 남겼으며 다른 時代 碑石에 비해 意匠이 풍부한 手法과 탁월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 。 北朝時代의 碑

北朝碑는 南朝碑에 비해 樣式上 相異한 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始初에  
는 意匠이나 技巧面에서는 세련되지 못하였다가 점차 발전하여 北魏에  
서 東魏, 北周(圖版1)를 거쳐오는 동안 碑身 頭部部分에 蟠龍을 彫飾  
하는 手法이 완전하게 발달하여 螭首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며 碑身 밑  
의 龜趺 역시 南朝의 영향을 받아 雄麗한 형식을 大成시켜 完全한 形態  
를 갖추게 된다.

이후 隋의 南北朝統一에 이어 南朝碑의 形式을 일축하고 北朝碑의 形  
式을 계승함으로써 이것이 唐나라 때의 碑石의 螭首와 龜趺의 新구적인  
바탕을 만드는 데 기초를 두게 되었으며 唐에 들어와서는 완전한 碑石의  
樣式과 意匠을 갖추어 螭首와 龜趺를 구비한 石碑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  
는 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 ④ 唐時代의 碑樣式(圖版 2)

後漢 때로부터 南北朝, 隋를 거쳐 唐에 이르러서는 石碑樣式이 더 한  
층 발전하여 현재 石碑의 樣式手法과 基本을 이룬 것으로 고찰되는 바  
石碑樣式에서는 碑身頭部에 蟠龍으로 彫飾된 所謂 螭首라는 것을 갖추  
게 되고 碑身 밑에는 四角形 方趺를 갖추는 것과 龜趺를 갖추는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碑身의 兩측면에는 화려한 紋樣으로 彫飾하는 形式  
을 갖추게 된다.

螭首.. 唐碑 螭首는 特色이 있는 바 이 螭首에는 左右各 二龍 또는  
三龍의 蟠龍들이 서로 몸체를 엉켜서 나타나고 蟠龍頭를 나란히 하여 石  
碑 어깨를 물고 碑身을 들어올리는 듯한 형상으로 彫飾하고 있으며 또  
한 蟠龍의 뒷발로 寶珠를 잡아 쥐어서 쳐들어 올리는 듯한 意匠으로 되  
어 있고 龍頭와 龍頭 사이에는 長方形的의 額을 設定하고 있는 것이 特色  
이다.

碑身.. 상응의 紋樣 彫飾이 없는 단순한 碑面에 刻字한 碑文으로 채  
워지고 있으나 碑身 양 측면에는 雲氣文이나 寶相花文, 雲龍文 등을 장  
식하여 양 측면을 화려한 意匠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大宗을 이루고 있  
으며 例外로 菩薩이나 神將, 瑞禽怪獸 등을 浮彫하는 手法도 있다. 그  
러나 대체로 그 彫飾方法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수법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時代에 비해 탁월한 意匠上 手法을 하고 있다.

方趺.. 碑臺石으로서 何等의 의장이 없는 단순한 네모난 方趺로 된  
것이 보통이며, 이 方趺는 대개 長方形이고 上面은 경사지게 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少林太宗御筆碑에서는 四面에 菩薩이나 瑞禽寶  
花를 彫飾하는 例도 있다.

龜趺.. 현재까지 遺存하는 것은 많지 않으나 最古로 오래 된 石碑는  
李勣碑를 들 수 있으며 또한 唐清河郡王紀功碑의 거대하고 당당한 龜趺  
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概觀하여 볼 때 中國의 石碑는 周代에 始作하여 後漢 때에 이

르러 石碑로서의 樣式을 갖추었다가 三國時代와 南北朝時代 그리고 隋代를 거쳐 唐代에 이르러서 비로소 螭首와 碑身, 龜趺를 갖추는 전형적인 石碑形式을 갖추어 후대까지 전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정된 形式과 樣式을 갖추는 규범이 되어왔다.

이렇게 고정된 形式과 樣式을 갖춘 唐碑의 手法이 新羅가 三國을統一하면서 이 반도에 직수입하여 統一期 石碑의 형태로 고정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 三、統一新羅時代石碑의 龜趺 및 螭首

統一期에 들어와서는 三國時代의 石碑에서 보는바와같이 自然石은 鍊磨하여 使用하거나 圭形石을 사용한 간단한 形式에서 벗어나 唐代 石碑의 形式과 樣式을 그대로 模倣直輸入하여 龜趺와 그 등위에 設定한 碑臺石 또는 碑座를 具備하고 그 위에 圭形의 碑身石을 세웠으며 또한 碑身石의 頂上部인 碑首에는 浮彫로 蟠龍을 힘차게 彫刻 彫飾하여 螭首라고 부르는 部分을 갖추게 된다.

이와같은 石物의 구성으로 되어진 石碑로서 現存하는 것을 慶州地域을 中心하여 他地域을 포함해 個個의 形式과 樣式을 說明하면서 論하고자 한다.

#### ① 太宗武烈王陵碑(圖版 3-1~5)

所在地: 慶北 慶州市西岳洞 九二—一

實測值: 龜趺크기 길이 三〇八cm, 폭 二四九cm

높이 一〇三cm

螭首크기 높이 一〇六cm, 폭 一三六cm

길이 一三六cm

碑座크기 一七三cm × 八六cm

武烈王陵에서 約 四〇m 앞의 左側에 方形의 臺座위에 龜頭를 西南向하여 세워져있는 國寶第二五號로 指定된 龜趺와 螭首를 갖추는 것이다.

現在 碑身은 없어지고 龜趺와 螭首만이 남아 있다. 龜趺는 極히 寫實的으로 表現되어 목을 길게 앞으로 빼어 있는 상태이고 목의 위아래와 머리 부분에는 寶相花文을 양각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또한 거북의 눈주위에도 보상화문으로 장식하고 있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다.

특히 龜甲과 접하는 부분의 목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五條의 큼직한 주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더욱 사실적인 表現을 가지고 있다.

등에는 龜甲을 彫飾하고 있는데 이 龜甲은 六角의 龜甲으로서 彫飾手法이 雄麗하며 또한 하나하나의 龜甲마다에는 年輪을 나타내는 듯하게 甲層을 重疊되게 체감형식으로 龜甲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龜甲外緣에는 飛雲文이 둘러져 있어 더욱 장식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龜甲의 등 中央에는 單瓣의 蓮花文속에 碑座를 設置하고 있으며 그 形態는 安定되고 彫法역시 精巧하며 雄麗하게 하였다. 螭首는 漢代石碑에서 보이는 圓首의 暈과 類似하게 좌우에서 三龍씩 六龍이 서로 엮여 싸우는 듯한 모양을 하고 뒷발로는 寶珠를 응켜쥐고 있듯이 나타내고 있다. 특히 좌우 三龍씩하여 배치한 六龍의 蟠龍形態는 정연하게 二個의 溝를 平行으로 配置한 듯하여 漢代石碑나 唐代石碑에서 보이는 暈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히 注目된다.

螭首前面 中央下部에는 높이 四二cm 폭 三三三cm의 題額을 만들어 篆書로 「太宗武烈大王之碑」라고 陽刻되어 있다.

이 太宗武烈王碑文은 當代에 이름난 太宗武烈王의 둘째아들인 金仁問의 撰書로 전하고 있으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특히 龜趺의 向이 西南向이고 앞발이 五爪이고 뒷발은 四爪로 되어 있는 것도 주목되는 점이라 볼 수 있으며 國內에 殘存한 石碑中 最大의 조각이며 寫實的인 표현이나 능숙한 技法은 統一新羅時代 初期의 石造技術의 發達相을 보여주는 代表的인 作品인 동시에 統一期石碑를 論하는데 基本的인 척도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확한 석비의 건립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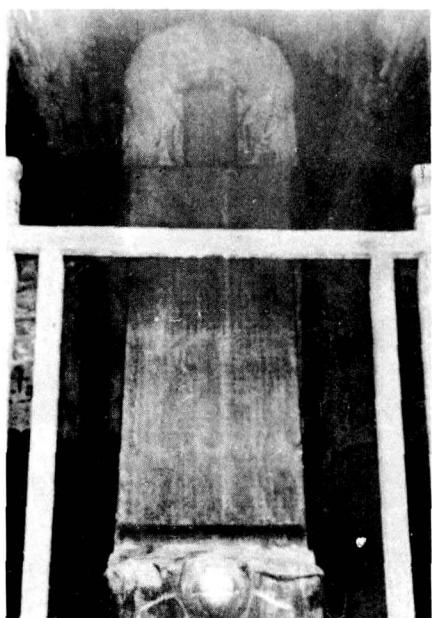


圖 1 陝西省 華陰의 西岳廟內 大周碑



圖 2 당태종비 御壽碑 貞觀20年(AD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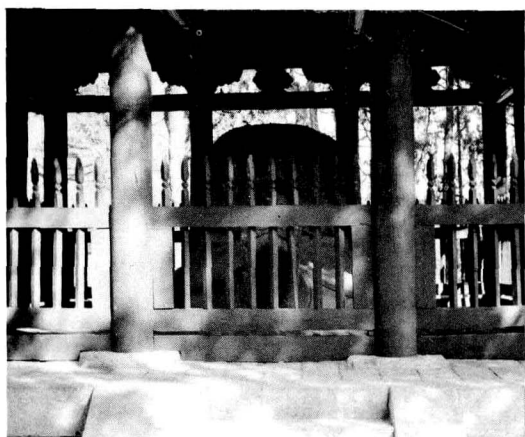


圖 3-1 태종무열왕능비 귀부



圖 3-2 태종무열왕능비 이수



圖 3-3 태종무열왕능비 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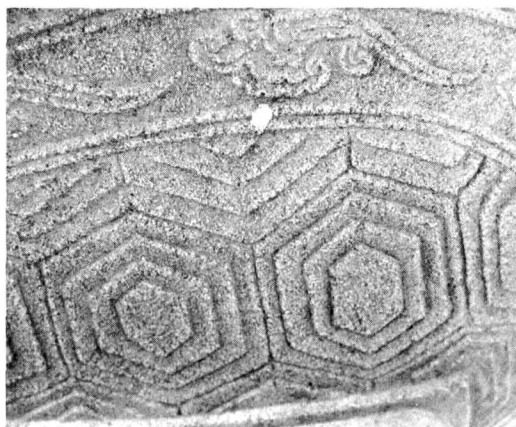


圖 3-4 태종무열왕능비 귀갑문

대는 알 수 없으나 무열왕이 昇遐한 AD 六六一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時期에 建立된 七c 후반기 作品으로 추측된다.

② 慶州西岳洞傳金仁問墓龜趺(圖版 4-1~5)

所在地: 慶北慶州市岳洞 一〇〇六

實測值: 龜趺크기: 길이 二八三cm, 폭 二一〇cm

높이 八九cm

碑座: 길이 一一四cm

폭 四五cm

높이 一五cm

寶物第七〇號로 指定된 文化財로서 龜趺의 크기는 太宗武烈王陵龜趺에 比하여 적으나 技巧的인 면에서 相當 뒤지지 않는 統一期初期의 作品이다.

이 龜趺역시 목을 길게 앞으로 빼었는데 목의 위아래에는 寶相花文을 장식하고 있으며 등에는 큼직한 龜甲을 지고 네 발로는 臺石을 힘있게 딛고 있다. 길게 앞으로 뻗은 쪽에는 龜甲가이에서 五條의 목주름살을 自然스럽게 간격을 두어 나타나 있고 龜眼주위에도 雲文을 表現장식하고 있다.

곧게 다문 龜口 아랫턱부분양측에 수염비운문을 역시 조식하여 더욱 龜頭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등에 지고 있는 龜甲은 六角으로 이루어진 龜甲으로서 그 조각솜씨도 確建하며 各個의 龜甲內에는 平輪을 나타내는듯 甲層을 重疊되게 表出하고 있는 것이 더욱 사실적이다.

전체 龜甲의 外緣에는 飛雲文을 돌리고 있고 飛雲文帶 外側에 一段의 연주문대와 같은 帶를 돌리고 있는 것이 또한 特色이다.

龜甲의 中央에는 蓮花文座에 碑座를 設定하고 있는바 이 碑座는 長方形으로 되어 있으며 碑座左右 兩側에는 塔의 基壇部에서 보이는 童子柱와 隅柱를 橫刻하여 나타낸 形象으로 彫飾되어 있다.

그리고 現在 龜趺의 向은 西南向이며 앞발과 뒷발이 同一하게 五爪씩으로 되어 있는 것이 太宗武烈王陵龜趺와는 다르나 제작 建立年代는 대략 통일기 초인 七세기 중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③ 聖德王陵龜趺(圖版 5-1~2)(삽도 1)

所在地: 慶北慶州市朝陽洞

實測值: 龜趺크기 길이 三〇五cm

폭 二六八cm

높이 九六cm

碑座크기 길이 一五四cm

폭 八六cm

聖德王陵에서 남쪽으로 약 50m 지점되는 눈에 위치한 龜趺로서 現在 龜頭와 螭首 碑身이 缺失되고 破損이 심한 狀態이다 方形의 臺座위에 앞발이 五爪, 뒷발이 四爪로 조각하여 確建하게 자리잡고 있는 形狀으로 등위에 덮인 龜甲은 浮彫가 淺薄하게 彫節된 六角의 龜甲으로 덮여 있으나 개개의 龜甲內에는 역시 平輪을 나타내는듯한 甲層을 四段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龜甲은 太宗武烈王陵龜趺나 金仁問墓龜趺와 달리 寫實的인 表現이 약하고 全體의 意匠이 강인하고 의기가 넘치는 生動감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등위에 얹혀 있는 龜甲의 外緣전체에는 雲氣文이나 唐草文등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四條의 새끼를 중첩해서 마디마디를 묶은 모양으로 周緣을 裝飾하고 있으나 龜趺後面 一部에는 生動감이 없는 圖式화된 一種의 唐草文을 彫飾한 것이 前面周緣과 다르게 한 것이 注目될 뿐이다.

그리고 龜頭가이에서는 太宗武烈王陵龜趺와 金仁問墓龜趺와 달리 龜甲이 어깨 넘어까지 덮고 내려와서 앞발부분으로 이어져 있는 형상으로 되어 가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고 또한 向은 西南向으로 역시 되어 있다.

龜趺의 造成時代는 聖德王陵을 造營한 以後 建立된 것으로 보며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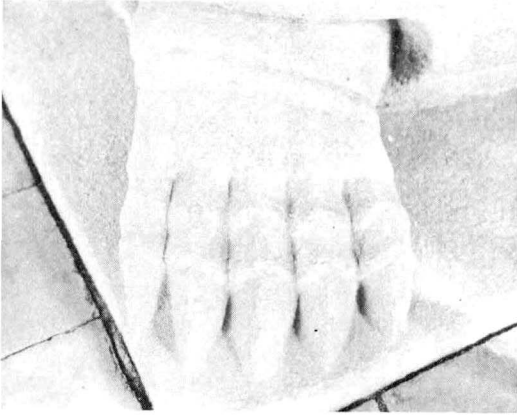


圖 3-5 태종무열왕능비 귀부 前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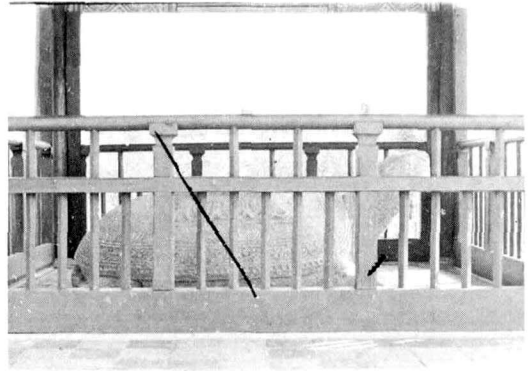


圖 4-1 김인문묘앞 귀부



圖 4-2 김인문묘앞 귀부 귀두



圖 4-3 김인문묘앞 귀부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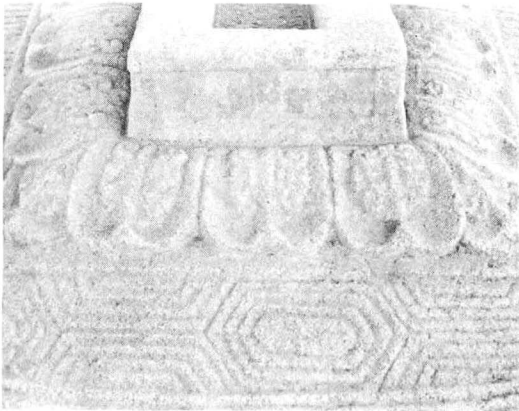


圖 4-4 김인문묘앞 귀부 귀갑문 및 비좌



圖 4-5 김인문묘앞 귀부 전측

은 왕릉의 石物 등에서 나타나는 彫刻手法과는 상당한 거리를 갈게하며  
 퇴락된 手法으로 인정돼 王陵造營 당시 同時에 製作建立되었다고 보기 힘  
 든 것으로 대략 八세기 후반경에 別途로 造成되어 建立된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④ 興德王陵龜趺(圖版 6-1~2)(삼도 2)

所在地: 慶北月城郡安康邑六通里

實測值: 龜趺 크기 길이 三七〇cm

폭 三〇二, 四cm

높이 一四五cm

碑座 크기 길이 一八五cm

폭 八四cm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된 龜趺로서 興德王陵 領域에 位置하고 있다.

現在는 龜頭 一部가 심한 파손을 당하고 있고 螭首와 碑身이 결실된  
 상태이다. 이 龜趺는 현존하는 龜趺中 統一期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가  
 장 거대한 龜趺의 하나이며 彫飾과 彫刻作風은 이미 藝術性을 잃어버리  
 고 있다.

統一期의 대표라 할 수 있는 太宗武烈王陵 龜趺나 傳金仁問墓 龜趺에  
 비해 사실적인 표현과 패기 그리고 웅려한 멋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  
 고 전체적인 龜趺의 형태는 낮고 무려하며 퇴락된 감을 보여주고 있다.

龜趺에서의 龜頭는 直立하고 있으며 등에 얹혀있는 거대한 龜甲도 세  
 부 彫飾方法 淺刻하며 龜趺의 목에는 圖式化하고 형식적으로 표현한 四  
 條의 주름이 보일뿐 이렇다할 특징이 없다.

등 위에 설정한 碑座 주변이나 龜甲外緣部에는 특징있는 文樣彫飾이  
 없고 단지 등의 龜甲과는 달리 작은 龜甲을 橫으로 하여 外緣을 돌리고  
 있는 것이 특이할 뿐이다. 그리고 전체를 덮고있는 등의 各 龜甲 內에  
 는 간략하게 중첩된 甲層을 一段으로 표시하였을 뿐이며 臺石을 덮고 있  
 는 龜足은 앞발가락이 五爪이고 뒷발가락은 四爪로 표현되었으며 전체

적인 龜趺의 方向은 西南向으로 되어 있다.

興德王陵 造營 당시인 僖康王(AD 836~838)時代④에 전후하여 造成  
 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때를 중심해 統一新羅時代의 石碑樣式을 區分하  
 는 분기점의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되며 統一期初에서 중반기로 넘어  
 가는 9세기초의 의미있는 作品이 아닌가 생각된다.

⑤ 高仙寺址誓幢和上塔碑龜趺(圖版 7)(삼도 3)

所在地: 慶北慶州市國立慶州博物館內

實測值: 龜趺 크기 길이 一七三, 六cm

폭 一六六, 七cm

높이 五七, 五cm

碑座 크기 길이 八七, 二cm

폭 三二, 四cm

蓮瓣座 크기 길이 一三九, 九cm

폭 七六cm

基臺石 높이 一八, 四cm

龜 頭徑 三三, 九cm

원래는 月城郡 內東面 暗谷里 高仙寺址內에 있던 것인데 현재의 慶州  
 博物館에 이관되어 있다.

塔碑의 龜趺는 龜頭와 螭首가 결실되어 있을뿐 전체는 완형에 가깝다.

이 龜趺는 거의 正方形의 基臺石 위에 彫刻제작한 龜趺로서 등에는 三  
 重의 蓮瓣座를 만들고 그 위에 長方形의 碑座를 설치하였을 뿐 등의 龜  
 甲文은 보이지 않고 있다. 蓮瓣座 위에 설치한 長方形의 碑座 역시 四  
 面に 蓮瓣文을 彫飾한 것이 注目되며 결실된 부분의 龜頭는 角度上으로  
 보아 金仁問墓 앞의 龜趺나 太宗武烈王陵 龜趺와 같이 앞으로 쪽편은  
 龜頭를 사실적으로 彫飾한 것 같이 추측된다.

龜趺의 앞뒤 발이 모두 同一하게 五爪로 되어 있으며 합차게 臺石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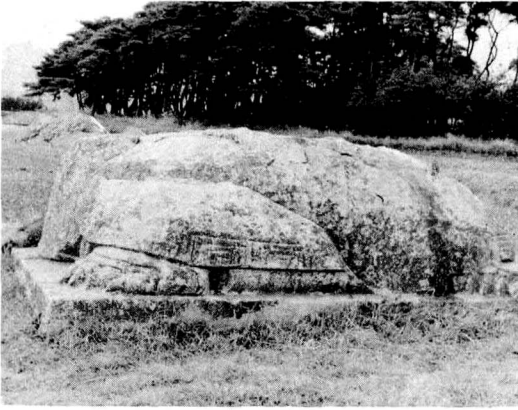


圖 5-1 성덕왕능비 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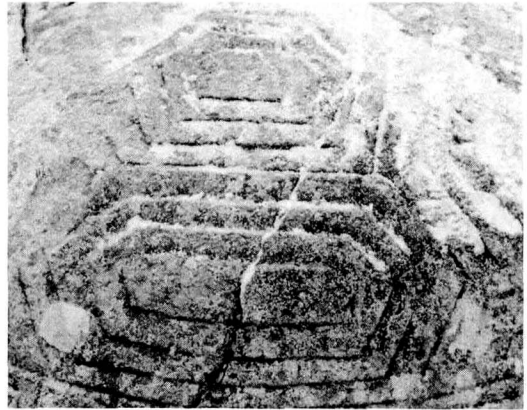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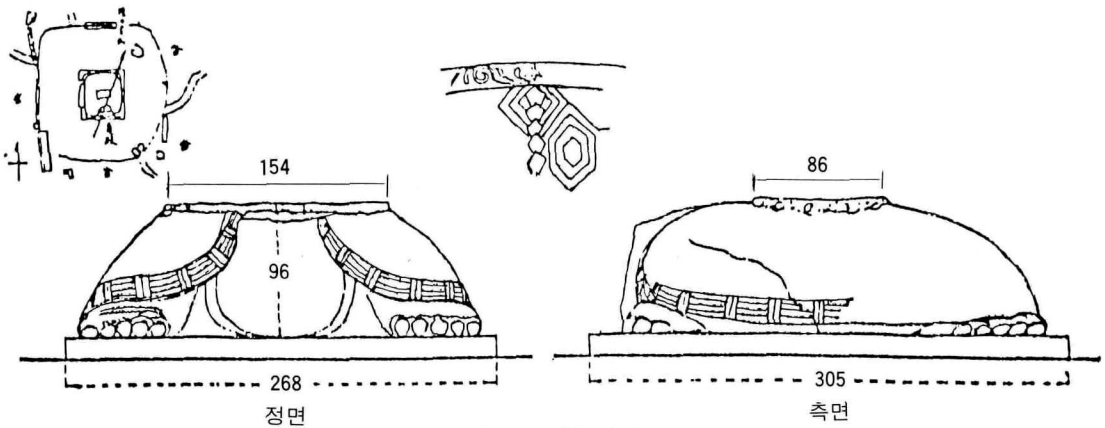


圖 5-2 성덕왕능비귀부 귀갑문



(삼도 1) 聖德王陵碑龜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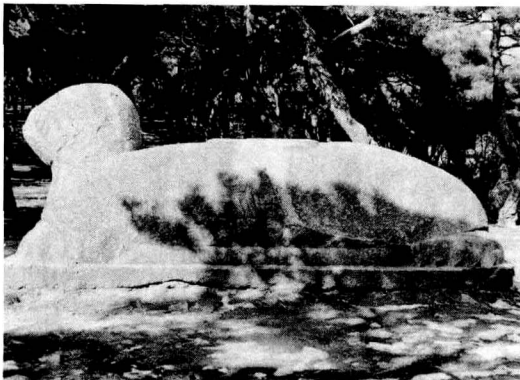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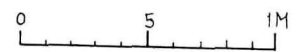


圖 6-1 흥덕왕능비 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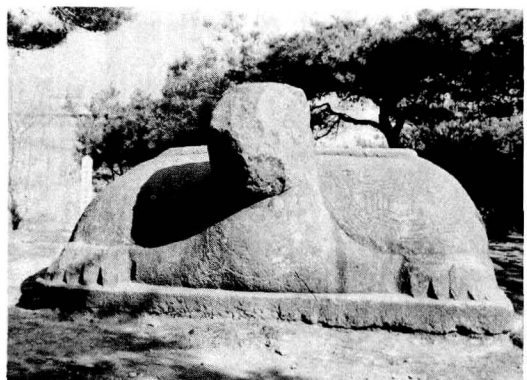


圖 6-2 흥덕왕능비 귀부 전면

등에 얹힌龜甲은 다른龜趺의龜甲에 비해 유난히도 낮은 형태로 있고 있는 것이注目되며 또한 方形의龜趺臺石 後面의隅角을 前面과 달리 등글게 처리한 것이 다른龜趺의臺과 다른手法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하게 처리한龜趺로서 그 예가 드물다.

龜趺 위에 놓였던碑身⑤은 寺址部近의 개천에서 발견되어 현재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碑文에 의하면 誓幢和尚 즉 元曉大師의 事蹟을 刻記한 것으로 惠恭王(AD 765~780) 때에 세워졌음을 碑文에 의해 확실하게 밝혀졌으며 이로 보아 이龜趺의 造成年代는 八세기 후반에 건립된 統一新羅時代의 우수한龜趺이다.

⑥ 四天王寺址龜趺(圖版 8-122)(삼도 4)

所在地 慶北慶州市排盤洞 95

實測值 龜趺臺石 크기

東側臺石 폭 二一·一 cm

길이 一九·四 cm

西側臺石 폭 一八·〇 cm

길이 二一·六 cm

東側龜趺碑座

길이 一〇·二, 一 cm

폭 四九, 三 cm

西側龜趺碑座

길이 一〇·四 cm

폭 五〇, 六 cm

東側龜趺龜甲 크기

길이 一七八 cm

폭 二一〇 cm

西側龜趺龜甲 크기

길이 二一〇 cm

폭 一九〇 cm

四天王寺址 南方의 도로변과 寺址內에 東西로 배치된 2個의龜趺로서 현재는 二個 모두龜頭와 碑身 그리고 螭首가 결실 망실된 채 남아 있다.

동쪽의龜趺는 웅대하고 우려했으나 서쪽의龜趺에 비해 심약하다.

제작년대 역시 동쪽의龜趺는 서기 六七九年 四天王寺를 創建할 당시 ⑥ 동시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되나 서쪽의龜趺는 이보다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동쪽龜趺 등 위에 있는龜甲들은 전체가 六角으로 彫刻이 우수하고 또한 각龜甲內에는 二段의 중첩된 甲層을 이루었으며龜甲의 外緣에는 二條의 세잔한 直線文樣帶를 돌리고 그 바깥으로 豊麗하고 연속적인 唐草文樣을 선명하게 특색있는 彫飾手法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 唐草文樣이 彫飾된 外周로 또 二條의 세잔한 直線文樣帶를 돌리고 있어 內外區를 區分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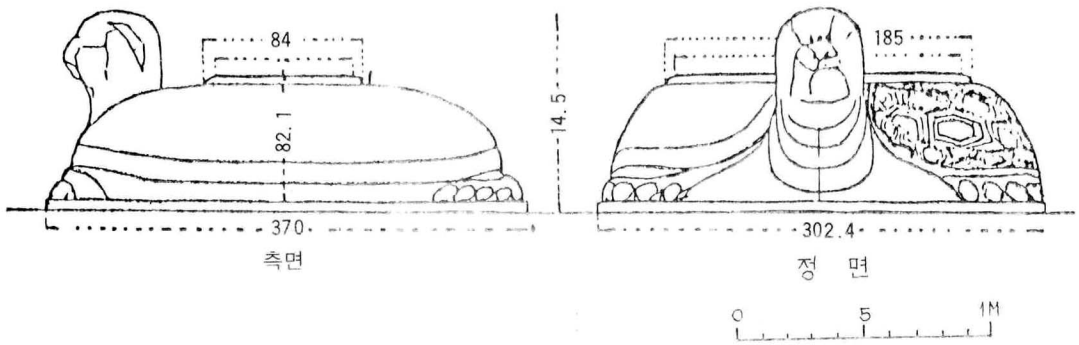
등 위에 얹은龜甲 중앙에는 二二瓣의 蓮瓣座를 설정하고 중심에 長方形의 碑座를 구비하고 있다.

龜頭는 결실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龜頭 역시 결실된 부분의 角度로 보아 直立한龜頭가 아니라 앞으로 쏠린龜頭를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목부분에는 뚜렷하게 三條의 주름살이 彫刻되어 있다.

서쪽 커부는 동쪽龜趺에 비해 전체문양이 단순한 감을 주고 있으나 이 역시 6角의龜甲들을 갖춘 등 위에 連瓣座를 설정하고 그 중심에 長方形 碑座를 구비하였다.

이龜趺도 동쪽龜趺와 유사하게 6角의龜甲 내에는 2段의 중첩된 甲層을 彫飾하고 있으며 전체龜甲의 外緣에는 2條의 直線文樣帶를 돌리고 그 바깥으로 연속된 唐草文樣을 돌렸으며 이 文樣帶 외곽으로 內區의 2條文樣帶와 同一한 직선문양대를龜甲 外緣 전체에 돌리고 있다.

서쪽龜趺의龜頭 역시 목에는 3條의 주름살을 彫刻하였으며 결단된 부분의 角度로 보아 동쪽龜趺와 同一하게 앞으로 쏠린龜頭를 구비



(삼도 2) 興德王陵碑龜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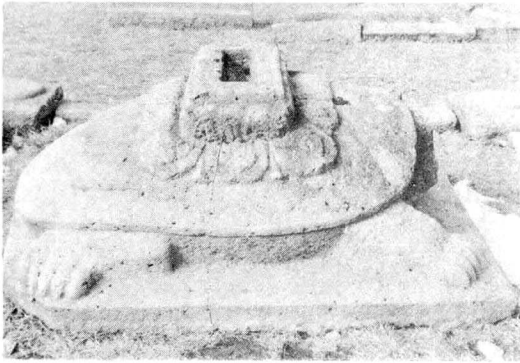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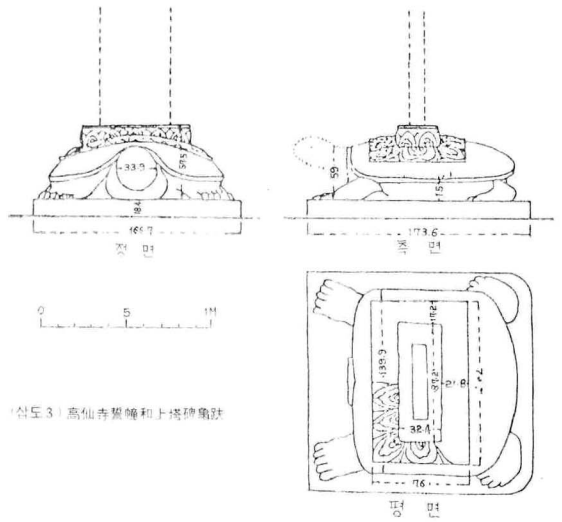


圖 7 고선사지 서당화상탑비 귀부



(삼도 3) 高仙寺墓幢和上塔碑龜趺



圖8-1 사천왕사지 귀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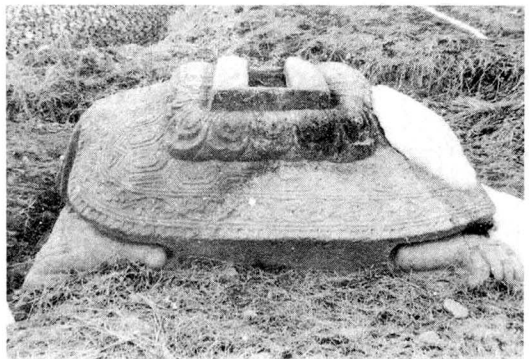


圖8-2 사천왕사지 귀부(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서쪽 2개의 龜趺의 앞발은 同一하게 5爪이고 뒷발들은 역시 4爪로 되어있다.

특히 寺址內의 龜趺配置는 현재는 東西로 配置한 형상으로 되어있으나 원 위치에서 변경된 상태가 아닌가 추측되며 전체적으로 보아 동서 龜趺의 彫刻彫飾한 手法와 技巧은 우수하여 氣風이 당당함으로 볼때 제 작년대는 역시 앞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四天王寺 창건 당시의 7세기 후반에 건립된 統一新羅時代의 수각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皇福寺址龜趺(도판 9)

所在地: 慶北慶州市九黃洞 一〇三

實測值: 碑座크기 길이 五四cm

폭 三〇cm

높이 一四cm

皇福寺址 南方路邊에 位置하고 있는 2基의 碑座로서 2基 모두 완전 마멸과손되어 龜趺의 형상이나 형태 그리고 덮고있는 龜甲의 전체적인 것은 파악할 수 없으나 오로지 碑座를 실정한 부분의 蓮瓣座와 碑座만이 全仁問墓 龜趺와 유사한 것 뿐이다.

전체적으로 파괴와 마멸이 심해 자세한 것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이 龜趺 역시 皇福寺址 造營 시기인 七세기경의 龜趺로 추정될 뿐이고 확실한 年代추정은 어렵다.

⑧ 崇福寺址雙頭龜趺(도판 10-1~2)(삼도 5)

所在地: 慶北慶州市國立慶州博物館

實測值: 龜趺크기 길이 一六三cm

폭 一九九, 九cm

높이 六三, 六cm

碑座크기 길이 一三六, 三cm

폭 五四, 五cm

이 龜趺는 原來 月城郡外東面末方里의 廢寺址에 있던것을 현재의 경주박물관 경내로 이관 전시되어 있는 龜趺이다.

一九三一年 七月 二八日 이 廢寺址에서 碑片이 발견되어 崇福寺 卽洞 鶴寺임이 판명되었고, 또한 碑는 眞聖女王代(708-710)에 崇福寺에 建碑된 것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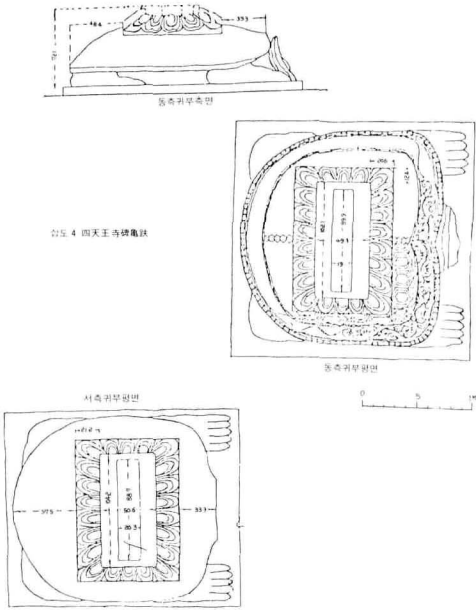
龜趺는 雙龜를 한개의 臺石위에 설치하여 雙龜의 各龜甲등에 1個의 長方形 碑座를 通해서 造成하였으며 龜頭는 약간 비스듬이 서로 相對하여 均衡있게 지립한 형태로 表現하였고 龜口部分이 약간 파손이 있을뿐 完形이다. 또한 龜眼이 특출거진 형태로 되어있어 龍頭化한 形式을 完然히 나타내고 있고, 兩턱에는 불수염이 엮을타고 귀밑까지 뒤로 날리는 형상을 뚜렷이 彫飾하고 있다. 龜趺의 잘막한 목부분인 頸部는 앞으로 볼수록 내밀고 있는듯 하며 그 頸部에는 一連의 방울을 頸飾形式으로 하여 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向해서 石側 龜趺는 三重의 방울 頸飾을 하고 있으나 左側의 것은 一連으로된 방울 頸飾을 하고 있는것이 또한 特異點이다.

龜趺의 등위에 있는 龜甲은 正六角形의 龜甲文을 各各別個로 하여 線刻으로 表示하고 있으나 各龜甲內에는 하등의 裝飾을 하지 않는 單純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兩龜趺의 龜甲上에 連하여 설치한 碑座周邊은 上段은 蓮瓣文 下段은 變形된 섬세하고 길게조각한 雲文으로 조식하였으며 兩龜甲이 接合하는 부분도 雲文이 변화한 一種의 唐草文으로 조식한 것이 特異點이다.

이상의 形象으로 볼때 龜頭가 점차 龍頭化해 가는 靈龜의 象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 또한 初期의 寫實의인 표현에서 점차 환상적인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兩龜趺의 前右足の 발가락은 四爪로 표현했으나 前左足과 달리 살짝 발가락을 들고 있는 것이 다른 龜趺에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이점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龜趺의 彫飾方法은 精巧하고 섬약하게 하였으나 技巧을 지나치게 부린듯한 것으로 時代는 統一新羅時代 말기인 九세기경



삼도 4 西天王寺碑龜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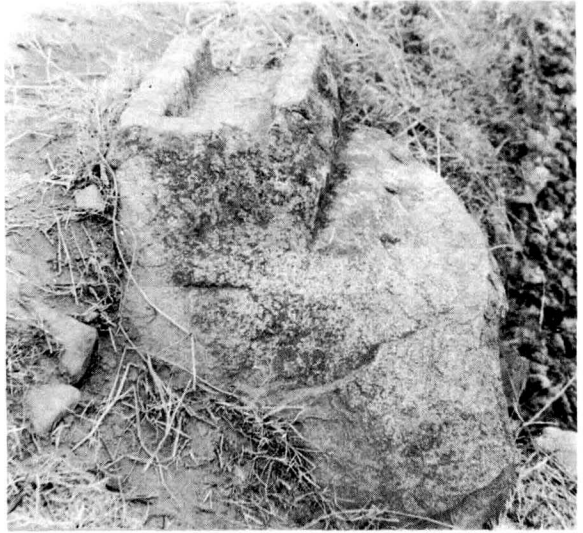


圖 9 황복사지 귀부



圖 10-1 송복사지 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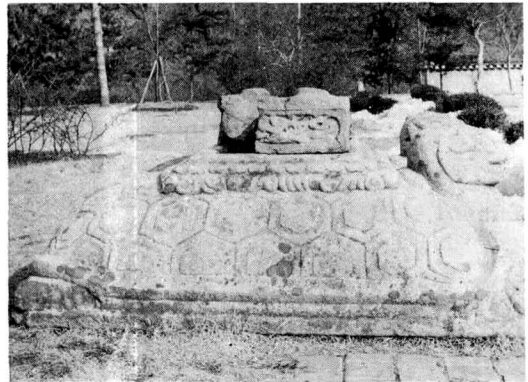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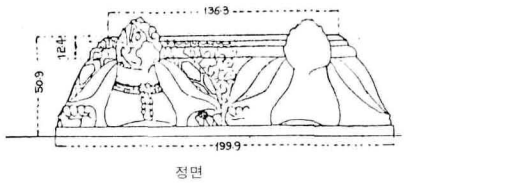


圖 10-2 송복사지 귀부



삼도 5 崇福寺碑龜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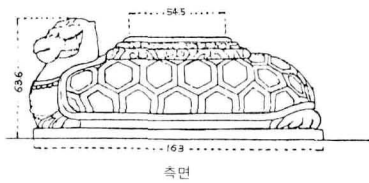


圖 11-1 무장사지 귀부

경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形態의 龜趺가 아닌가 생각된다.

⑨ 整藏寺址阿彌陀造像事蹟碑龜趺(도판 11)

所在地: 慶北慶州市暗谷洞

實測值: 龜趺크기 길이 一七五 cm

폭 一一〇 cm

높이 七〇 cm

碑座크기 길이 一二二 cm

폭 四七 cm

높이 二〇 cm

螭首크기 길이 一〇四 cm

두께 四二 cm

높이 六三 cm

이 碑는 新羅 三九代 昭聖王(七九九年)의 妣인 桂花夫人이 王의 명복을 빌고자 阿彌陀佛像을 조성하여 奉納할 때 세운 것으로 ⑧ 碑의 建立은 昭聖王이 사망한 다음 해인 哀莊王 二年(AD 八〇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龜趺 근처에서 발견된 碑身과 螭首의 단편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螭首에는 題額을 실정하고 있는바 그 題額 內에는 「阿彌陀佛□□」이라는 六字를 二行으로 縱刻했으며 螭首 단편의 좌측面에는 近世朝鮮時代 阮堂 金正喜의 探查記文이 별도로 刻記되어 있다. ⑨

현재 雙龜趺는 兩龜頭 전부가 절단되어 결실된 상태이고 螭首의 일부 분도 龜趺近處에 방치되어 있다. 절단망실된 龜頭部分의 角度로 보아 崇福寺址 龜頭와 같이 直立形으로 되어 同一方向으로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에는 龜甲을 엮고 있으나 二종의 六각형 선각 龜甲文으로 彫飾하고 있고 各 龜甲 가장자리에 는 一條의 線刻으로 장식하고 있다.

龜趺의 발은 초기 龜趺와 달리 미려하게 圖式化된 상태이고 前足은 발

가락이 五爪, 後足은 四爪로 하여 方形의 臺石을 딛고있는 상태이다.

특이한 점은 龜甲 중앙에 長方形의 높다란 碑座를 실정하고 있는바 碑座의 밑 주변에는 蓮瓣文을 변형시킨 雲文을 돌리고 있고 그 위에 높 다랗게 실정한 碑座 4面에는 十二支神像을 陽刻으로 彫飾하고 있는바 前後面인 東西面에는 各 4 軀씩 8 軀를, 左右面인 南面과 北面에는 各 2 軀씩 4 軀의 神像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統一新羅末期 高분에서 나타나 十二支神像의 護石配置法과 상통되는 후기 作으로 생각된다.

또한 龜趺의 碑座에 神像을 彫飾하는 方法은 이 例子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절단된 螭首를 관찰하여 보면 蟠龍이 雲氣文 속에서 앞발로 如意珠를 장악하고 있고 統一初의 太宗武烈王陵碑 이후 螭首가 잔존하는 例子 없어 統一期 螭首의 변천을 파악하는데 整藏寺의 螭首가 남아있는 것은 樣式변천에 貴重한 資料라 할 수 있다.

대략 龜趺의 製作年代도 哀莊王 2年인 西紀 801年으로 볼때 9세기 直初의 作品으로 본다.

⑩ 昌林寺址雙頭龜趺(삼도 6)

所在地: 慶北月城郡內南面排里

實測值: 龜趺크기 길이 一五一, 五 cm

폭 一五一, 五 cm

높이 三八, 四 cm

碑座크기 길이 八一, 八 cm

폭 一九 cm

後面隅角을 둥글게 처리한 方形의 臺石위에 龜頭와 頸部의 大理石이 심하게 破損된 龜趺가 놓여 있으나 全體形態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現在 남아있는 龜趺의 頸部는 崇福寺址 雙龜趺와 유사하게 불룩하게 나와있는 상태이고 또한 頸部에는 一連의 圖式化한 鬚을 두거리를 垂飾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破損된 頸部의 角度로 보아 龜頭역시 直立한 形

態의 것이었을 것으로 본다.

龜趺의 등위에는 龜甲이 덮여 있는바 그 표현방법은 規則的인 形態가 아니고 單線의 線刻으로 불규칙하게 4角形 또는 5角, 내지 6角形의 線刻 龜甲文을 彫飾하고 있다. 그리고 龜甲의 外緣에도 아무런 장식없이 등의 龜甲이 그대로 연결되어 外緣을 돌리고 있고 서로 맞닿고 있는 內側의 龜趺 앞발은 약간 옆으로 비껴서 치들고 있어 安定感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前後足 同一하게 5爪의 발가락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簡略하게 圖式化하였다.

등위 龜甲에 設定한 碑座는 獨立된 碑座를 別個로 造成하지 않고 龜甲에다 직접 長方形의 溝를 造成하였다.

龜趺의 形態를 全體的으로 볼때 龜甲의 彫飾방법이나 碑座의 造成 그리고 前後足과 頸部 등에서 나타나는 手法가 簡少하고 裝飾性이 없는 圖式化되고 퇴락된 龜趺이다. 特히 東京雜記에 記錄된 「有古碑無字 元學士 趙子昂 昌林寺 碑跋云 石唐新羅僧 金生所書 其國 昌林寺 碑字 畫深有典 刑雖 唐人名刻 無以遠過之地 古語云 何地不生才 信然」에依하면 金生이 昌林寺의 碑글씨를 썼다고 되어 있으나, 金生은 聖德王 10年(AD 711年)에 태어나서 景德王 때 前後하여 활약한 當代의 書筆이 能한 스님으로 볼때 昌林寺 龜趺를 이때 당시인 8初로 보기에 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 記錄에 나타나는 것과 龜趺는 전혀 別個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역시 龜趺의 造成時期는 中葉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치 않을까 생각된다.

⑪ 唐劉仁願紀功碑龜首(도판 12)

所在地: 國立扶餘博物館

實測值: 최고 3, 35 m

碑身高: 2, 02 m

幅 1, 08 m

現在 龜趺는 없으나 螭首와 碑身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螭首의 形象은 圓首主形에 蟠結한 雙龍을 彫刻하고 있는 전형적인 唐碑의 樣式을 模

倣하고 있다. 이와 同系의 形式을 보이는 예는 慶州의 太宗武烈王陵 龜趺의 螭首로서 統一初의 唐碑形式을 갖춘 좋은 예의 하나이다.

碑文에 나타난 記錄에 의하면 顯慶 5年(AD 660年) 羅唐聯合軍이 百濟를 攻略할때 唐에서 遠征온 唐將 劉仁願의 紀功碑로서 실질적으로 는 唐碑인 것이다.

碑의 建立은 龍朔 3年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는 新羅文武王 3年(AD 663年)에 해당되며 劉仁願이 百濟의 殘勢力을 平定한 해에 해당한다 碑身에 刻字된 碑文은 良體의 楷書이며 그 內容에 나타나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慘狀을 역력히 알 수 있고 또한 撰 書者 모두 劉仁願의 글씨가 아닌 不明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龜趺나 螭首의 樣式을 定立 규 명하는데 보다 중요한 자료의 하나인 것은 分明하다.

⑫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碑龜趺(도판 13)

所在地: 全北南原郡山內面立石里

實測值: 龜趺地臺幅 一, 六一 m

螭首높이 一, 〇三 m

폭 〇, 七二 m

現在 碑身石을 상실한채 龜趺와 螭首만이 남아 있다. 證覺大師는 일 명 洪陟國師 또는 南漢祖師로서 憲德王(AD 809-825年) 때에 入唐하였으며 興德王元年(AD 826年)에 東還하여 禪門九山の 하나인 南岳에서 實相山派을 開基한 高僧인 동시 禪風을 宣揚하였다. 또한 興德王과 宣充太子를 歸衣케 하였으며 證覺大師의 墓塔인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은 바로 이 龜趺와 螭首가 있는 뒷면 언덕에 位置하고 있다.

龜趺는 片麻岩으로 오랜 歷史가 흐르는 동안 風化作用에 의해 細部的인 彫飾이 거의 탈락되어 判別할 수 없을 정도이고 현재도 탈락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龜趺와 螭首의 造形은 당시 一般化되어 있는 龍頭化한 龜頭의 樣式과는 달리 古典的 形態를 잘 나타내고 있는 龜頭로 彫出한 것은 희귀

한 기법이며 太宗武烈王陵龜趺의 모습을 充實히 繼承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螭首의 造形도 武烈王陵龜趺의 螭首를 祖型으로한 系流이며 螭首中間에는 題額이 있는바 額中에는 篆字體로 「證覺塔碑」라는 四字가 刻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規模는 작고 彫風이 強烈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규모있고 아담한 것이다.

龜頭는 實際龜頭に 充實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頸部나 龜頭上에 細部的인 섬세한 彫飾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龜趺의 등뒤에 있는 龜甲은 현재 앞면이 磨滅이 심하여 알아 볼 수 없으나 다행히 後面一部에 龜甲文이 殘存하여 있으며 이 龜甲文은 역시 陽刻으로 정연한 六角形의 甲文으로 하고 있고 各龜甲文內에는 二重의 甲文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龜甲의 外緣 전체를 잔적이 일정한 두께로 素文대로 돌리고 있고 이 周緣帶를 連하여 三重의 直六角形의 龜甲文은 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등뒤에 설정한 碑座에는 一段의 仰蓮과 伏蓮반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장방형의 낮은 碑座를 造成하였다.

方形의 臺石위에 龜趺의 앞발은 내어 밀고 뒷발은 옆으로 빗겨서 딛고 있으며 특히 臺石과 龜趺腹部에는 龜腹部의 넓다란 龜甲층을 뚜렷이 나타낸 彫出法은 他 龜趺에서 볼 수 없는 흥미있는 것이다. 螭首에서는 太宗武烈王陵螭首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蟠龍이 螭首 兩側面에서 各三마리씩 蟠龍頭를 아래로 하여 서로 蟠結된 형태로 되어 있고 碑身과 접하는 밑부분은 雲文으로 전체를 둘러고 있다.

제작시대는 증가대사의 묘탑비인 관계로 확실한 年代를 알 수 있는 九세기 中葉의 것이다. ⑩

⑬ 雙峰寺澈鑿禪師塔碑龜趺 및 螭首(도판 14)

所在地…全南和順郡梨陽面雙峰里(雙峰寺境內)

實測值…龜趺長 一、四 m

現在 碑身은 없고 龜趺와 螭首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 塔碑는 雙峰

寺의 國寶第五七號로 지정된 澈鑿禪師塔과 더불어 新羅 景文王八年(AD 八六八)에 入寂한 澈鑿禪師를 위하여 建立된 것이다.

龜趺는 方形의 臺石위에 龜頭는 龍頭化하고 半開한 龜口에 如意珠를 물고 頸部를 앞으로 내어 밀고 고추세운 直立龜頭形이며 龍頭化한 龜頭頂上에는 코뿔소와 같은 突起를 가추고 있다.

앞으로 내어 밀고 있는 頸部에는 爬蟲類의 주름잡힌 腹甲形式 重疊文이 彫飾되어 있다. 龜趺의 背甲에는 六角形의 重廓龜甲文이 매우 선명 정연하게 배치되고 龜甲의 外緣에는 別途로 重廓龜甲文은 半切한듯 橫으로 龜甲文의 끝선을 따라 선명하고 정연하게 돌리고 있다.

背甲의 龜甲文 中央에 長方形의 碑座를 設定하고 있는바 碑座 四面에는 浮彫가 심한 雲文을 彫飾하였고 그위로 一段의 반침대를 정하고 위에 三二瓣의 伏蓮瓣文을 돌리고 또 그 上面에 三段의 圓弧로 된 괴임을 刻出하고 있다.

龜趺의 四足은 다른 龜趺에서와는 달리 四足전부가 三爪로 되어 있으나 前石足만은 살짝 들어올려 여유를 보이고 있는 형상이며, 유난히도 四足의 발가락이 굵고 生動力있게 刻出하여 새로운 造形美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면의 頸部 아랫쪽은 臺石上에 腹甲을 刻出한듯 圓形의 一段반침이 뚜렷이 있는 것이 주목된다. 螭首의 造形도 蟠結龍形이 생략된 雲龍文만을 四面에 彫刻하였고 아랫부분은 三段의 반침대로 刻出하고 그위로 仰蓮瓣을 四面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前面 中央에 長方形의 題額을 구비하였고 螭首頂上에는 원래 三個의 火炎寶珠를 各各 설정하였을것을 생각되나 현재는 二個만이 남아 있다.

전체적인 造形法으로 보아 統一新羅末의 造形으로서 격렬한 조각기법 은 당시 石碑造形의 또다른 경지를 전개시키는 듯한 우수작으로 九C 중엽의 代表的 龜趺라 할 수 있다. ⑪

⑭ 寶林寺普照禪師影聖塔碑龜趺 및 螭首(도판 15)

所在地…全南長興郡有治面鳳德里



圖 11-2 무장사지 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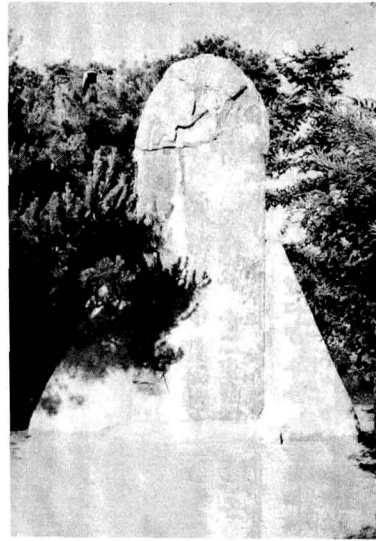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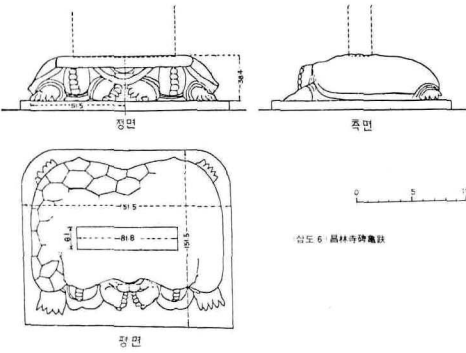


圖 12 唐劉仁願紀功碑離首



실도 6 萬林寺碑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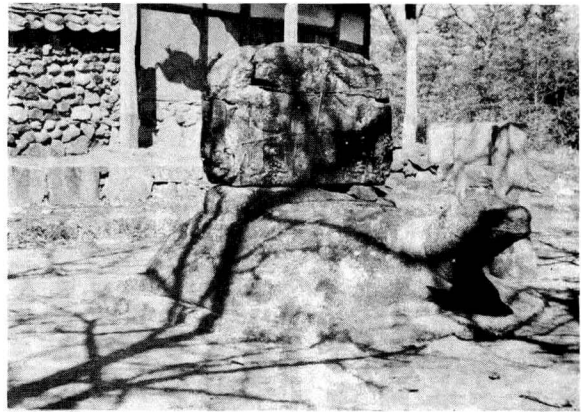


圖 13 실상사 증각대사응려탑비 귀부



圖 14-1 쌍봉사 철감신사탑비 귀부



圖 14-2 쌍봉사철감신사탑비 귀부

實測值：總高三、四六m、碑身高二、六四m

幅一、三七m

現在寶林寺境內에 龜趺와 螭首、碑身을 모두 갖춘 原形그대로의 普照禪師塔碑이다.

碑身頂上에 있는 螭首의 題額內에는 「迦智山普照禪師碑銘」이라 刻字된 九字三行의 碑題가 있다.

碑文은 金頴의 撰文이고 글씨는 金彥卿의 글씨로서 되어 있다.

碑文에 나타난바에 의하면 普照禪師의 法名은 體證이고 俗姓은 金氏

로서 新羅哀莊王五年(AD 八〇四)에 入寂하고 憲康王六年(AD 八八〇)에 享齡 七七세로 入寂하였다.

그후 憲康王 一〇年(AD 八八四)인 中和四年 九月 九日에 塔碑를 세웠다.

建碑한 年代가 確實한 塔碑의 造形을 살펴 보면 龜趺의 龜頭는 直立한 頸部에 完全히 龍頭化 되어있고 彫刻手法 역시 매우 깊게 하였으며 兩龜眼이 불거지게 튀어나오고 龜口를 半開한 龜頭의 全體形象이 매우 사납게 彫刻하고 있다. 直立한 龜頸部에는 虺蟲類腹甲에서 보이는 橫으로 된 주름잡힌 鱗甲이 장식되어 있다. 등뒤에 있는 背甲인 龜甲은 六角形으로 정연하게 彫飾되어 있고 龜甲外緣全體는 素文帶의 넓은 테를 周緣으로 하여 둘러고 있다.

六角形의 各龜甲 個個內에는 細線으로 二重의 甲文을 連接시켜 정연하게 彫飾함과 동시에 六角의 龜甲文 中央에는 또다른 一條의 縱線을 두 특하게 彫飾했다.

背面 전체를 덮고 있는 龜甲 앞부분은 直立한 頸部를 둘러싼듯이 하여 肩部까지 깊게 내려져 덮고있다.

龜趺의 四足은 方形의 臺石을 닮고 있으며 各龜足의 발가락은 마디가 굵게 된 형상이고 四爪로 되어 있다.

특히 龜復足은 발가락이 휘이면서 앞을 향해 뒹고 있으나 발톱은 매우 寫實的이고 날카롭게 表現하고 있다.

背面的 龜甲 中央에 設定한 長方形의 碑座는 四面에 雲文이 彫刻되고 그 上段의 一段에는 二八瓣의 蓮瓣를 配列하였으며 配列된 蓮瓣위로 二段의 괴임을 刻出시켜 碑身을 받게 하였다.

碑身頂上에 있는 螭首는 下部에 碑座上段部에 列配한 蓮瓣과 같이 정

연하게 蓮瓣文을 돌렸다 螭首四面의 一段에는 역시 碑座와 同一한 雲文을 돌렸으며 一段의 괴임위에 設定된 螭首에는 中央에 題額을 中心하여 對稱的으로 蟠龍을 배치하였고 兩側의 蟠龍 一部分을 透彫로 나타내고 있는것이 注目된다. 그리고 배치된 蟠龍의 몸체 以外空間도 雲文으로 화려하게 彫飾한 것이 特色이다.

이와같은 점으로 볼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普照禪師의 塔碑는 憲康王 一〇年(AD 八八四年)⑫에 建碑된 確實한 龜趺로 당시의 造形樣式을 究明하는데 重要な 것으로 九세기 中葉의 統一新羅時代 龜趺의 優秀作의 하나이다.

### ⑮ 禪林院址弘覺禪師塔碑龜趺 및 螭首(도판 16)

所在地：江原道襄陽郡西面黃耳里

實測值：螭首높이 五三、五cm

碑座 一二五cm×五〇cm

現在禪林院址에는 龜趺와 螭首만이 殘存하고 있으며 碑身은 下部殘片만이 景福宮 勤政殿廻廊에 陳列保管되어 있다.

碑身殘片에서 判明된 字句는 約 一五〇餘字일뿐으로 塔碑의 建立年代를 新羅 定康王元年(AD 八八六)으로 추정하고 있을뿐 確실한 절대년대를 알 수 없다.

龜趺의 形象을 보면 역시 直立한 頸部에 龍頭化한 龜頭로 하고 있고 兩龜眼 역시 불거지고 龜口는 사납고 힘있게 다물고 있다. 또한 兩龜耳는 풍긋하고 날카롭게 조식하고 있다. 특히 龜頭의 이마 가까이에는 다 인형의 一개 溝가 있어 鬚을 附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龜趺의 頸部에는 虺蟲類의 腹甲에서 보이는 五개의 橫으로된 鱗甲文

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밑으로 臺石 위全體를一段의 龜趺腹甲을 刻出하고 있다.

등위에 있는 背甲인 龜甲은 二重線刻으로 彫飾한 六角의 龜甲文으로全體를 덮고 있다. 또한 普照禪師塔碑의 龜趺와 같이 龜甲이 頸部兩側을 덮으면서 肩部까지 덮고 내려온 形態로 되어 있으며 龜甲의 外緣部分은 素文帶로 周緣을 돌리고 있다.

龜甲의 中央에 設定한 碑座에는 下段部에 雲文으로 彫飾하고 그 위一段에는 左右側面에 一區 前後面에 三區씩의 眼象이 彫飾되어 있는 것이 特異하다. 이 眼象帶를 彫飾한 上段에는 伏蓮瓣을 둘러 碑身石을 받치게 하였다.

方形臺石위에 四足으로 되어 있는 龜足은 발가락이 四爪로 되어 있으나 龍頭化한 龜頭의 彫飾法에 비해 날카롭지가 않다. 現在 碑座위에 놓여 있는 螭首는 下部面에 仰蓮瓣으로 彫飾하고 그 위에 설치한一段의 四面에는 深刻한 雲文을 刻出彫飾하였으며 螭首中央의 題額역시 三면을 雲文으로 彫飾하고 있으나 下部一面만은 三區의 작은 眼象을 刻出하고 있다. 이 螭首역시 蟠龍이 雲氣文을 몸에 감듯이 하여 對稱的으로 題額을 中心해 配置되어 있는 상태이다.

螭首前面 中央의 題額內에는 篆字體로 「弘覺禪師碑銘」이라는 六字를 二行으로 陽刻하고 있다. 記錄에 의하면 弘覺國師가 入寂한 후 定康王元年(AD 八八六年)丙午에 建立하였다고 하는데 龜趺나 螭首에 彫刻한手法이나 장식 등의 기교와 아울러 眼象, 雲氣文 등의 수법과 양식이 九세기 발경의 확실한 작품으로 본다. ⑬

### ⑬ 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龜趺 및 螭首(도판 17)

所在地: 慶南河東郡花開面雲樹里雙谿寺

實測值: 總高 三六三cm 碑身高 一〇二cm

龜趺와 碑身 螭首가 거의 完全한 塔碑로서 雙谿寺境內에 保存位置하고 있다.

塔碑의 碑身은 壬辰倭乳과 六、二五 動乳등으로 損傷을 입은 것을 스넨강철로 된 틀에 넣어서 현재상태로 龜趺上에 螭首를 갖추고 遺存되어 오는 貴重한 塔碑이다.

이 塔碑는 崔致遠의 四山碑의 하나이며 眞鑑禪師는 新羅末의 名僧으로 新羅哀莊王五年(AD 八〇四)에 入唐하여 興德王五年(AD 八三〇年)에 歸國하여 新羅歷代王의 尊敬과 尊崇함이 높다가 新羅文聖王一二年(AD 八五〇) 現雙谿寺에서 亭齡七七세로 入寂하였다. 이 碑의 建碑年代는 碑身과 碑文의 寸上으로 인해 확실치 않았으나 朝鮮王朝 二代英祖元年인 一七二五年에 木板에 移刻된 碑文에 의해 「光啓三年 七月 日建」이로 밝혀져 신라 정강왕 2年(AD 八八七年)에 建立 되었음이 判明된 塔碑이다. ⑭

역시 龜趺의 龜頭는 신라末期에 나타나는 樣式과 같이 龍頭化하였으며 龜頭의 龜眼은 크고 앞으로 볼록 나왔으며 龜口는 半開하고 있고 짧은 頸部를 하고 있다. 方形의 臺石을 단고 있는 龜趺의 四足左右側下部面은 腹甲의 形式을一段으로 刻出하고 있으며 四足은 前後足 同一하게 주름이 많은 긴발로 하여 접혀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듯한 形상으로 彫刻되어 있다.

龜趺의 등위 背甲인 六角形의 龜甲文은 크고 간결하게 區劃線을 굵게 淺刻하였을뿐 아무런 장식도 없다.

背甲인 龜甲의 中央에 설치한 장방형의 碑座下端部는 4面全部를 雲文으로 장식하고 그 上段에一段의 물딩한 받침대를 造成하여 碑身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龜頭는 아무장식이 없는 짧은 頸部에 환상적인 龍頭로 표현되어 있어 統一新羅末期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現在 碑身頂上에 놓여 있는 螭首는 兩側을 비스듬이 자른 馱三角形으로 되어 있고 四面은 爭珠하는 蟠龍이 힘있게 彫刻되어 있다. 螭首前面 中央에는 深刻한 方形의 題額이 마련되어 篆書體로 「海東故眞鑑禪師碑」라는 碑銘이 陽刻되어 있다. 특히 螭首頂上에는 仰蓮瓣위에 寶珠를 얹

고 있는 것이 注目되는 점이라 할 수 있으며 定康王 2년에 建立된 確實한 塔碑로 統一新羅末期의 作品을 樣式상이나 形式上으로 究明하는데 貴重한 作品中 하나이다.

⑬ 月光寺圓朗禪師塔碑龜趺 및 螭首

(도판 18-1~2)

所在地: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景福宮內

實測值: 總高 395cm

圓朗禪師塔碑는 忠清北道 月光寺址로 부터 一九二二년에 景福宮으로 移轉建立한 龜趺, 碑身, 螭首를 完全히 갖춘 塔碑인 것이다.

圓朗禪師는 新羅末의 高僧으로서 憲德王 八年(AD 八二六年)에 탄생하였고 文聖王 一八年(AD 八五六年)에 入唐하여 유학하고 景文王 六年(AD 八六六年)에 歸國하여 王의 信任을 받아 禪門을 더욱 빛나게 하였으며 憲康王 九年(AD 八八三年)에 亨齡 六八세로 入寂하였다. 王은 그의 禪德을 칭호하여 圓朗禪師라 追贈하고 塔名을 大寶光禪이라 하였으며 眞聖女王元年(AD 八九〇年)에 圓朗禪師가 入寂한후 七年만에 塔碑를 세웠다. ⑮

龜趺는 方形的 臺石위에 倭少한 四足を 딛고 있고 龜頭는 역시 龜口를 약간 半開한채 正面을 응시하는 直立하고 龍頭化 되어 있는 상태이다.

直立한 龜頭의 頸部는 짧으나 앞부분의 頸部中心部에는 一條의 線條를 縱으로 平行되게 彫飾하고 그內에는 爬蟲類의 腹甲에 나타나는 橫으로된 鱗甲을 忠實되게 조각하였다. 그리고 頸部에서부터 前足부분에 이르기까지 縱으로 鱗甲文모양의 주름부리를 또한 조각하고 있고 앞부분은 腹甲을 波狀文으로 하여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龜趺의 등에는 두더운 背甲을 어깨너머까지 덮이게 나타내고 있으며 背甲인 龜甲은 크기가 약간씩 다른 二重五角形의 龜甲文을 配置하였는데 各 龜甲文內에는 陽刻의 花文 1個씩을 또다시 화려하게 彫刻하여 裝飾性을 優麗하게 하고 있다. 全體龜甲 外緣에는 1條의 線帶를 設定하고 그밖으로 蓮花文을 장식한 周緣帶를 돌리고 있으나 다른 塔碑의 龜趺에 비해 龜甲全

體는 몹시 두껍고 둔탁하게 표현되고 있다.

背甲인 龜甲中央에는 長方形의 碑座를 設定하였으나 碑座周邊은 雲文이 소용돌이치듯 힘차게 彫飾되어 있고 또한 중간 중간을 연관문이 약간씩 변화된 형태로 雲文 사이사이에 2瓣내지 3瓣씩 배치하여 雲文과 蓮瓣이 서로 交互하여 위로 치솟는듯 장식성있고 變化있게 彫刻한 형태이다. 이와같은 형태위로 長方形의 碑座를 設定하고 있는바 比喩의 양 측면은 2區의 眼象을 前後面에는 五區씩의 眼象을 정연하게 배치하고 있으나 眼象內部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비좌上段은 二段으로 처리하고 一段에는 精巧한 伏蓮瓣을 돌렸다. 특히 龜甲의 中心線을 줄기 部分에는 낮게 도드라져 忠實되여 내려진듯한 鱗甲文이 線刻되어 있다.

碑身頂上의 螭首는 매우 깊게 조각한 雲文사이에서 蟠龍이 爭鬪하듯 立體의 으로 조각되어 螭首全體가 약동하는 듯 하게 하였으며 中央에 設定한 方形的 題額內 碑名은 파손과 풍화작용에 의해 관독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碑身に 나타난 碑題는 □□□□□江府月巖山月光寺詔諡圓朗禪師大寶禪光靈塔碑并序라 하였는데 金頴의 撰文이고 五騰山菩提潭寺釋迦沙門 淳蒙이 글씨를 썼다.

全體的으로 볼때 龜趺는 方形的 臺石위에 四足を 딛고 짧은 頸部에 直立하고 龍頭化된 龜頭로 되어 있으나 龜趺全體에 비해 4足이 倭少하고 背甲이 둔탁하고 두껍게 되어 있을뿐 螭首의 彫風등은 寫實性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碑身, 龜趺, 螭首의 여러부분 比例가 잘 조화된 우수하고 수려한 統一新羅後期인 AD 八九〇年代의 전형적인 石碑의 하나이다.

⑭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龜趺 및 螭首

(도판 19-1~2)

所在地: 忠南保寧郡帽山面聖住里

實測值: 總高 四五五cm (碑身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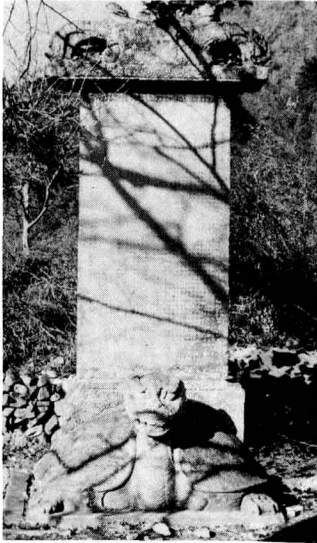


圖 15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 귀부 및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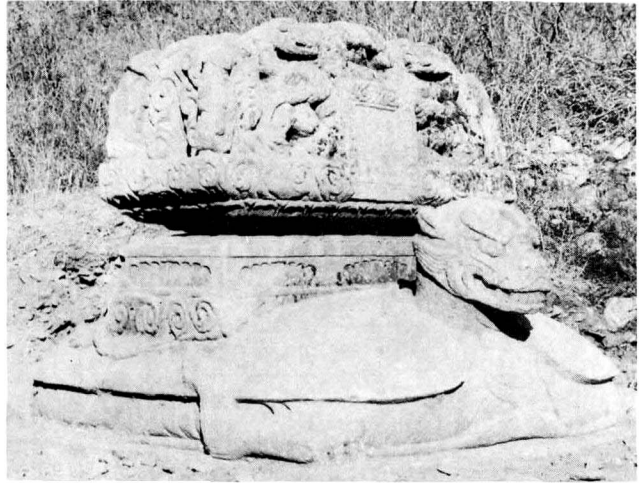


圖 16 선림원지 귀부 및 이수



圖 17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귀부 및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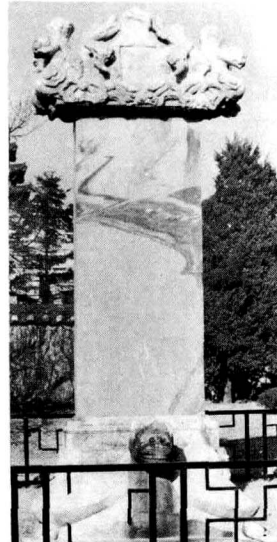


圖 18 | 1 월광사원랑선사탑비 귀부 및 이수



圖 18 | 2 월광도원랑선사탑비 귀부

統一新羅時代石碑로서는 最大의 巨作이며 龜趺와 碑身等 一部에 損傷이 약간 있을뿐 完全한 塔碑이다.

碑文은 崔致遠이 撰文하고 崔仁浚의 글씨로서 當代의 代表할만한 것이다.

朗慧和尚은 太宗武烈王 8世孫이며 哀莊王 11年(AD 810年)에 出生하였고 仁祗기 入唐하여 唐에서 20餘年間 滯留하다가 新羅文聖王 7年(AD 845)에 歸國하여 聖住寺의 住持가 있다. 眞聖女王 2年(AD 888年)에 享齡 八九세로 入寂하였다. 이 訃報를 듣고 王은 「朗慧」라 諡號를 내리고 塔名은 「白月葆光」이라 하였으며 建碑年代는 入寂한지 2年後인 眞聖女王 4年(AD 890年)으로 본다.<sup>16)</sup>

龜趺는 龜頭以下가 埋沒되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露出된 龜頭는 환상적인 怪獸形으로 龍頭化되어 있다.

現在の 龜頭를 보면 頭上에 一個의 鬚을 갖고 있고 竝々한 兩耳에 덕에서부터 전체를 수염이 날리는 듯 조식하였으며 半開한 龜口에 특출한 兩龜眼을 하고 있다. 그리고 頸部는 목을 뒤로 젖힌 直立形이며 잔잔한 鱗甲文이 線刻되어 있다. 背面의 龜甲에는 二重으로 陽刻된 六角形의 龜甲文이 彫飾되어 있고 特別히 龜甲의 등줄기는 碑座後面에서부터 龜尾부분까지 突起되고 세잔하게 彫飾된 雲文을 連結시켜 굽게 등줄기를 나타내고 있다. 現在 地上으로 露出된 龜甲으로 보아 龜甲의 外緣部는 鱗甲文과 같은 文樣帶를 둘러 周緣을 裝飾한 듯하며 龜趺의 肩部까지 덮혀있는 듯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龜甲의 中央部에는 큼직하게 深刻彫飾한 雲文으로 되어 있고 그위에 長方形의 塔座를 크게 마련하였는데 左右側面에는 眼象 一區씩을 배치하였고 前後面에는 眼象 二區씩을 배치하고 있는바 眼象內部에 花文과 雲文을 秀麗하게 陽刻으로 彫飾하였다. 碑身頂上에 具備한 螭首下部에는 一段의 角形받침과 圓弧로 된 一段의 받침을 設定하고 그위로 三六瓣의 仰蓮瓣을 둘러 螭首下部 二面을 裝飾하고 있다. 그리고 仰蓮瓣과 接해서 螭首全體를 深刻한 雲文과 蟠龍이 서로 映겨진 듯 조식하고 있고 蟠龍은 兩側이 對稱的으로 각

각 二마리씩 蟠結된 蟠龍으로 되어 있다. 螭首의 中央에 마련한 題額은 四面을 雲文으로 둘러싸며 또한 題額의 頂上에는 작은 蟠龍頭一個를 別途로 하여 龜趺의 龜頭와 同一方向인 正面으로 配置하여 응시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全體의 樣式이 當代의 塔碑중 特徵을 잘 보이고 있고 있어 彫刻의 技法과 樣式이 當代의 塔碑중 特徵을 잘 보이고 있고 統一新羅時代 後期作品으로서 遜色이 없는 代表할만한 作品이다.

### 19)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龜趺 및 螭首(도판 20)

所在地: 全北南原郡山內面立石里

實測值: 總高二九〇cm

이 塔碑는 秀澈和尚의 塔碑로서 和尚은 新羅眞聖女王 7年 5月(AD 893)에 享齡 七七세로 入寂한 實相山派의 高名한 禪僧이었다. 秀澈和尚이 入寂한후 王은 諡號를 「秀澈」, 塔名을 「楞伽寶月」이라 하였다.

대략 和尚의 寶月塔碑 建立年代를 新羅 孝恭王代(AD 897-912)로 추정하고 있으며<sup>17)</sup> 다른 塔碑와는 달리 龜趺를 구비하지 않고 地臺石위에 長方形의 臺石을 마련하여 碑座를 삼았으며 一段의 角形받침대 위에 높은 비좌를 하고 四面에 眼象六區를 刻出彫飾하고 있다. 眼象이 彫飾된 높은 碑座臺 위에는 重瓣二二瓣의 伏蓮을 肉刻하여 둘러싸고 있다. 이와 같은 碑座의 造形 形式은 當代에서는 보기 드문 일례이다. 碑身頂上에 있는 螭首의 形式도 二마리가 서로 대칭하여 爭珠하는 듯 조각되어 있으나 그 手法는 形式的이고 硬化된 淺刻의 手法이며 장엄한 彫法을 약화한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螭首中央에 마련한 題額에는 「楞伽寶月塔記」라고 縱二行으로 된 篆書體의 塔碑名이 刻記되어 있고 또한 頂上에는 雲文에 감싸여 있는 寶珠를 設置하고 있다. 全體의 인 면으로 볼때 塔碑는 眞실 질박한 方形臺石의 統一期末期의 特殊한 일례를 남기는 것의 하나로 주목된다.

②0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龜趺 및 螭首(도판21)

所在地: 慶北開慶郡加恩面院北里  
實測值: 總高 二七三cm (碑身包含)

智證大師는 統一新羅末의 高僧으로 九山禪門의 하나인 鳳巖寺의 開山祖이며 이 塔碑는 崔致遠 四山碑中의 하나로서 碑文의 書刻은 모두 芬皇寺의 釋慧江僧이 하였다. 釋慧江僧은 文聖王四年壬戌에 태어났으며 塔碑의 建立은 新羅景明王 七年甲申에 세웠다 하는 記錄이 있다. ⑱

螭首上에 있는 題額은 磨滅이 심하여 判讀할 수 없으며 智證은 俗姓이 金氏로서 新羅憲德王 一六年(AD 八二四)에 出生하였고 一七세에 浮石山寺에 就學하고 具足戒를 받은후 瓊儀律師에 師事하였다.

그리고 憲康王 八年(AD 八八二)에 享年 五九세로 入寂함에 王이 諡號를 「智證」이라하고 塔名을 「寂照」라 하였으며 碑를 세우게 하였다. 그러나 碑文에 의하면 塔碑는 景明王 七年(AD 九二四)에 세웠다는 기록으로 되어 있으며 비문에 나타나는 龍德四年歲次甲申六月 日竟建은 景明王 八年甲申으로서 같은 경내의 靜眞大師碑보다 四一年 앞서고 있다. 龜趺, 碑身, 螭首等의 一部가 破損되어 있으나 같은 境內의 靜眞大師碑보다 뚜렷하고 螭首의 造形은 多樣하며 사실성을 띠고 있다.

龜趺의 龜頭는 直立한 頸部에 역시 龍頭化 되어 있으며 龜頭頂上에 一個의 窟이 높이 刻出裝飾되어 있다. 또한 龜口는 半開한 채 口內에 如意珠를 물고 있다. 直立한 頸部는 굽게 처리한 七개의 橫으로 된 柱를 兩邊에 對稱으로 刻出裝飾되어 있고 背面的 龜甲은 直六角形의 二重陽刻線으로 된 龜甲으로 되어 있고 各龜甲內에는 花文一個씩을 배치하고 있다. 龜甲의 外緣은 장식 없이 無文帶를 周緣으로 둘러고 있다.

方形의 臺座를 壇고 있는 四足은 五爪의 발가락을 구부러 앞으로 前進하듯 表現하고 있으며 背甲인 龜甲의 中央部에 設置한 碑座에는 一段의 雲文을 배치하고 그 위로 높은 碑座臺를 設置하였다.

碑座臺四面에는 飛天像이 刻出彫飾되어 있는바 兩側面에는 各一軀씩,

前後面에는 各二軀씩 彫飾되어 있는데 飛天의 彫刻手法은 優雅하고 全體空間을 天衣로 장식하고 있다. 碑座의 上段部分은 二四瓣의 重瓣伏蓮을 彫刻하였으며 그 위로 圓弧로 된 一段의 받침대를 造成하였다.

螭首는 下部面에 碑座臺의 伏蓮과 같이 仰蓮의 蓮瓣을 둘러고 그 위로 雲文속에서 八마리의 蟠龍이 서로 蟠結하여 仰蓮귀에 造成한 寶珠를 爭珠하듯 生動感넘치게 彫飾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때 龜趺는 비록 龍頭化되고 있으나 螭首에 彫刻한 蟠龍이나 碑座의 各面에 裝飾刻出한 飛天像等의 彫風等은 統一新羅盛期의 要約된 강렬한 彫刻技法의 表現이며 장식화로 이행되는 기법의 표준이라 할수 있는 통일신라 말기의 중요 작품이며 또한 신라석비중 오직 유일하게 비좌에 비친을 彫飾한 特例의 作品中 하나로 注目되는 것이다.

②1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龜趺 및 螭首(도판22)

所在地: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景福宮內  
實測值: 總高 三三七cm (碑身包含)

이 塔碑는 原來 慶南昌原郡上南面所在 鳳林寺址에 있던것을 一九一九年 三月 日帝의 朝鮮總督府가 現在의 景福宮內로 옮겨세운 것이며 寺址에 있던塔은 附近의 上南中學校 뒷뜰에 移建되어 있다.

塔碑의 螭首中央의 題額에는 「故眞鏡大師碑」라 刻字되어 있고 碑題는 「有唐新羅國故國師諡眞鏡大師寶月凌空之塔碑銘并序」로 시작되고 있으나 碑身의 最下部 부분이 거의 水平으로 절단되었던 것을 현재 맞추어 세웠다. 절단된 부분의 刻字는 인멸되어 이 부분을 碑身이면에 補刻하였고 缺失된 부분의 석재는 원형에 맞추어 新材로 補完해 碑座에 嵌入하였다. 碑文은 景明王의 親撰이며 篆額은 崔致遠의 從弟인 崔仁濬의 글이고 碑의 글씨는 門下僧 釋幸期의 글씨이다.

眞鏡大師는 俗姓이 金氏로서 新羅文聖王 一七年(大中九年, AD 八五五年) 一二月 一〇日에 出生하였음이 記錄되어 있고 新羅景明王七年(AD 九二四) 四月 二三日 鳳林寺의 禪堂에서 享齡 七〇才로 入寂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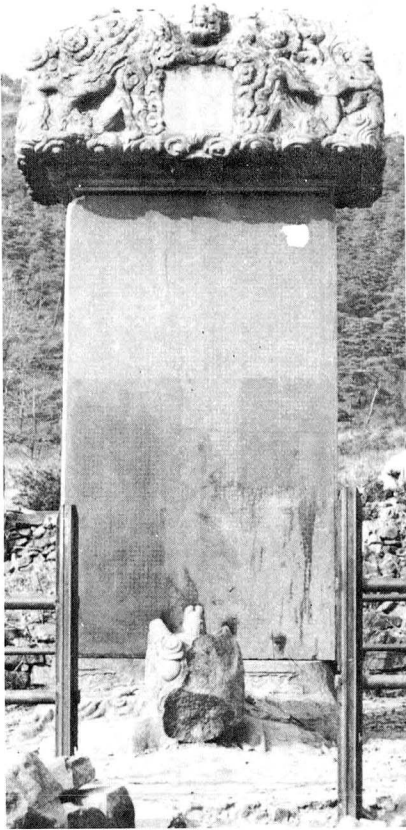


圖19-1 성주사 낭혜화상백월 보광  
탑비 귀부 및 이수



圖19-2 성주사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 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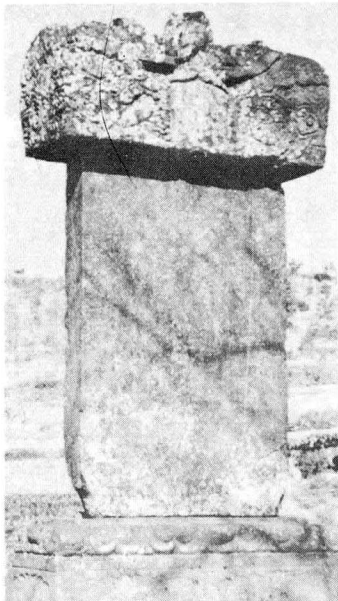


圖20 실상사 수청화상楞伽 보  
월탑비귀부 및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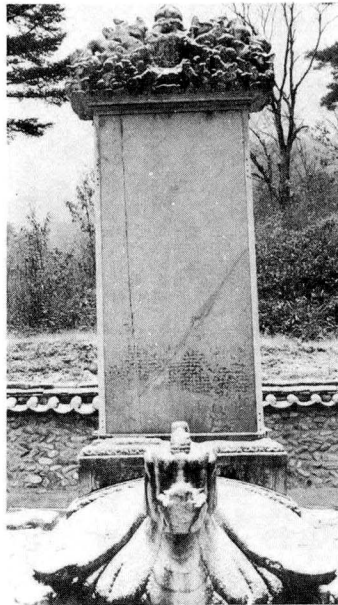


圖21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귀부 및 이수



圖22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  
탑비 귀부 및 이수

로 王은 眞鏡이라 諡號를 내리고 塔名을 寶月凌空이라 하였다. 이로 보아 塔碑의 建立은 大師가 入寂한 후 景明王 八年 即 景哀王元年인 AD 九二四年에 세운 듯 하며 龜趺와 碑身 螭首를 完全히 갖춘 塔碑로서 龜趺의 龜頭는 짧고 直立한 頸部위에 비대하여진 龜頭를 갖추고 있으나 그 형태는 역시 둔탁한 龍頭化로 되어있으며 平開한 口內에는 如意珠를 물고 있는데 上下口齒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짧은 경우엔 中央에 二條橫線으로 된 四段의 橫縐帶甲文형식을 刻出하였고 그 兩側으로 縱으로 된 二條의 縱線帶를 마련하고 있다. 龜趺의 背甲에는 二重線帶로 陽刻한 直六角形의 龜甲文을 정연하게 淺刻으로 配置하고 있고 龜甲의 外緣에는 일정간격으로 雲文을 彫飾한 文樣帶로 돌리고 있다. 또한 龜甲中央部에 마련한 높은 碑座에는 四면은 雲文으로 彫飾하였으며 雲文上段에는 重瓣의 伏蓮瓣을 돌리고 그위로 一段의 낮은 角形碑받침대를 設定하였다. 그리고 龜趺의 龜甲 밑으로는 발가락을 五爪로 한 짧은 四足を 刻出表現하여 方形의 臺石을 닮고 있다. 그러나 龜趺全體에 比해 四足의 比例가 矮少하다.

碑身上에 놓여 있는 螭首는 中央에 方形의 題額을 마련하고 題額上部에 화염에 쌓여 있는 寶珠를 向해 兩側面에서 蟠龍各二마리가 蟠結된 相對的으로 爭珠하는 듯 雲文에 쌓여 淺刻으로 刻出表現되고 있고 그 밑으로 角形一段받침을 마련하고 받침밑으로 重瓣仰蓮의 蓮瓣을 돌렸으며 또 그 밑으로 角形二段의 받침대를 각출하였다. 그리고 碑身의 兩側面에는 餘他的의 石碑 碑身과 달리 雲龍文이 纖細하게 篆刻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며 이와 같은 彫風이 高麗石碑의 양측면에 나타나는 雲龍文에 영향을 끼친 듯하다.

全體의 面으로 볼 때 龜趺、碑身、螭首가 比例있게 造成되어 있으나 彫刻手法과 樣式상의 技巧는 纖麗淺刻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碑座의 雲文이나 螭首의 雲文과 蟠龍等이 形式에 치우쳐 있는 刻風으로 統一新羅末期의 감되고 形式化된 기풍을 代表하는 龜趺와 螭首로 본다.

#### 四、龜趺 및 螭首의 樣式과 形態變遷

앞에서 이미 자세히 개개의 石碑들의 龜趺와 螭首를 소개한 바와 같이 統一新羅時代에 속하는 二一基의 石碑를 觀察하여 보면 AD 六六一년에 建碑한 것으로 추정되는 太宗武烈王陵碑의 龜趺와 螭首에서 부터 高麗王朝가 始發되는 直前인 AD 九二四年에 建碑되었다고 보는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의 龜趺 및 螭首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樣式과 形態를 分類하여 본다면 新羅의 石碑를 形式상으로는 古新羅時代의 古典基本型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서는 唐碑模倣型和 唐碑模倣變型 등으로 分類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時期的으로는 七〇 이전까지는 純粹한 古典基本型이었으나 통일 을 이룩한 七〇서부터 八〇末까지는 唐碑直模倣型의 石碑龜趺와 螭首를 갖추게 되고 이 시기를 統一新羅石碑의 前期로 보며 그以後인 九〇부터 高麗王朝가 始作되는 一〇〇初까지는 唐碑模倣型에서 變化된 即變型의 石碑龜趺와 螭首를 갖추게 됨에 이 時期를 後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본다.

##### ① 古新羅時代古典基本型

- 北漢山眞興王巡狩碑
- 昌寧橋上洞拓境碑
- 黃草嶺眞興王巡狩碑
- 摩雲嶺眞興王巡狩碑
- 丹陽赤城碑 等은 들 수 있고,

##### ② 統一新羅前期石碑

- 唐碑模倣型
- 太宗武烈王陵龜趺 및 螭首(六六一年)

唐劉仁願紀功碑螭首(六六〇年頃)

四天王寺址龜趺(七〇 후반)

金仁問墓 앞 龜趺(六九四年頃)

高仙寺址誓幢和尚塔碑龜趺(七六五~七八〇年)

聖德王陵龜趺(七五四年) 등을 統一新羅時代 前期石碑로 보며,

### ③ 統一新羅後期石碑

。唐碑模倣變型

興德王陵龜趺(八三七年)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碑龜趺 및 螭首(八六一~八九三年)

雙峯寺澈鑿禪師塔碑龜趺 및 螭首(八六八年)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龜趺 및 螭首(八八四年)

禪林院址弘覺禪師塔碑龜趺 및 螭首(八八六年)

雙谿寺眞隱禪師大空塔碑龜趺 및 螭首(八八七年)

聖住寺址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龜趺 및 螭首(八八九年頃)

月光寺址圓朗禪師塔碑 및 螭首(八九〇年)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龜趺 및 螭首(九二四年)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龜趺 및 螭首(九〇 후반)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龜趺 및 螭首(九二四年)

等이고 이와 같은 唐碑模倣變型에서 雙龜趺의 異型으로 再次 變型된 部類가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다.

。唐碑模倣變型中異型

釜藏寺址阿彌陀如來造像碑龜趺 및 螭首(八〇一年)

崇福寺址龜趺(九〇경)

皇福寺址龜趺(九〇경)

昌林寺址龜趺(九〇경?) 등이다.

특히 前期의 唐碑模倣型에서 後期의 唐碑模倣變型 樣式으로 變化移行되는 起點에서 重要な 것은 龜趺의 龜頭와 頸部에서의 큰 차이점이다.

그것은 前期의 龜趺에서는 龜頭가 寫實的인 龜頭이고 頸部도 앞으로 쪽 轉이 龜頭를 仰形으로 하고 있으나, 後期에 이르러서는 龜頭가 점차 變化的인 龍頭化로 變화되어 가고 있고 頸部도 S字形態로 되어가든가 아니면 直立으로 變化되어 가고 있고 또한 頸部에 彫飾하는 文樣이 前期의 自然스러운 主를 文樣이 아니고, 虺蟲類의 鱗甲文과 유사한 것을 重點으로 刻出시키며 半開한 龜口에 如意珠와 같은 것을 물리게 하고 頭上에 卽같은 돌기를 나타내는 등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前期에 속하는 AD 七五四에 제작된 聖德王陵龜趺까지는 앞으로 쪽 轉인 龜頭와 頸部로 되어 있으나 AD 八三七년에 造成된 것으로 보 是 興德王陵龜趺에서부터 비로서 龜趺는 直立하기 始作하는 注目되고 重要な 造成 形態를 나타내 前後時期의 變遷에 起點을 뚜렷이 나타내며 또한 AD 八〇一年에 造成된 釜藏寺址阿彌陀造像塔碑龜趺에서부터 처음으로 雙龜趺에 直立한 頸部를 갖추고 半龍頭化된 龜頭로 變化되고 있는 점을 볼 때, 前後期의 變化기점을 이 二種의 龜趺에서부터 起點으로 七〇~八〇까지는 전기, 80~90까지는 후기로 하여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 五、結 論

前期에 屬하는 唐碑直模倣型石碑의 龜趺와 螭首는 대체로 太宗武烈王 陵碑龜趺와 金仁問墓 앞 龜趺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木을 앞으로 쪽 轉이고 있으며 上은 下를 향해, 눈알크게 떠서 寫實的인 龜形으로 양동하듯 背力이 넘치는 감을 보이고 있고 龜趺의 頸部와 龜眼 그리고 龜甲, 外周緣等 에는 雲文과 唐草文을 陽刻하여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龜甲文은 사실적인 重疊龜甲文으로 표현하였으며, 龜頭와 頸部 발가락等 全體가 박진감 넘치는 사실적인 조각으로 표현 造成하고 있다. 또한 圓首의 形態로 된 螭首에 陽刻彫飾한 六蟠龍이 蟠結된 彫刻手法역시 龜趺와 同一하다. 龜甲中央에 設置造成한 碑座周邊에는 간결한 蓮瓣文을 둘러고 있으나 後期인 唐碑模倣變型에 들어와서는 龜趺의 龜頭가 直立한 頸部위에

龍頭化되어 가고 있고 頸部에는 橫條의 虺蟲類鱗甲文을 彫飾하며 龜甲은 어깨넘어까지 두텁고 무겁게 날리게 된다. 그리고 龜甲文은 圖式化되고 硬化된 감을 주고 있다. 螭首역시 前期와 달리 圓首에서 冠形 또는 蓋形으로 變化되어 가고 있으며 龜頭의 龜口는 半開한 채 如意珠 등을 물고 있다.

그리고 龜甲의 中央에 마련한 碑座에는 前期와 같이 蓮瓣文을 彫飾하는 例도 있으나 대부분 雲文과 蓮瓣文을 混用하여 彫飾하면서 높은 碑座臺를 造成하고 碑座의 各面에 眼象, 十二支神像, 飛天像 등을 彫飾刻出하는 多樣한 手法를 보이고 있다. 또한 螭首頂上에는 雲龍文을 彫飾하면서 頂上中央에는 화염에 쌓인 寶珠 등을 造成함과 동시에 前期에서와 같이 蟠龍의 龍頭가 碑身을 물고 있는 듯한 양상이 아니고 서로 대칭적으로 머리를 위로 들고 맞대어 爭珠하듯한 형태로 급격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龜甲文은 圖式化된 淺刻의 六角龜甲文을 나타내는가 하면 龜甲外緣에 장식하는 周緣帶에는 대부분 無文으로 단타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後期에 속하는 唐碑模倣變化에서는 異形으로 一個의 臺座上에 雙龜頭를 한 龜趺를 造成하는 形式이 나타나며 이들 龜趺의 龜頭역시 환상적인 龍頭化로 變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 頸部에는 崇福寺址 龜趺에서와 같이 橫條의 鱗甲文이나 방울목걸이 등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것도 좀더 세분하여 各部分別로 본다면,

### ① 龜 頭

前期에 속하는 唐碑模倣型의 太宗武烈王陵碑龜趺, 金仁問墓 앞 龜趺의 龜頭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七〇경의 龜頭는 사실적인 彫法으로 表現하고 있으며 龜頭의 方向도 仰形으로 되어 가나 九〇경인 八三七年에 建碑되었다고 보는 興德王陵龜趺에서부터는 頸部가 直立하기 시작하는 시조를 마련하며 이때부터 唐碑模倣型에서 模倣變型으로 移行되어 가며 아울러 龜趺의 頸部가 直立하고 龜頭가 사실적인 龜頭에서 환상적인 龍頭

化된 龜頭로 變하여 간다. 또한 이와 같은 龜頭의 頂上에는 불과 雲文 등을 造成장식하는 양상으로 되어간다.

### ② 頸 部

太宗武烈王陵龜趺, 金仁問墓 앞 龜趺 등의 前期에 속하는 것의 頸部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정한 간격으로 四條 내지 五條의 목주름이 탄력있게 조식되어지나 後期에 들어와서는 寶林寺 普照禪師彰聖塔碑 龜趺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 縱線 굵고 내부에 橫條의 鱗甲文 등을 刻出彫飾하던가 또는 큼직한 蟠龍의 鱗甲文 등을 옆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한편 崇福寺址 龜趺의 頸部에서와 같이 방울목걸이를 彫飾하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며 頸部의 형태도 『S』字形으로 되던가 아니면 直立한 형태로 되어 앞으로 볼수록 頸部가 나오는 형상을 하고 있어 대단히 장식적이고 화려함을 더해가고 있다.

### ③ 龜 甲 文

龜甲文은 前期에서는 전체가 三重, 四重의 直六角龜甲文을 하나의 龜甲 내에 중첩되게 刻出하여 龜甲의 生成年代를 나타낸 듯하고 있으나 後期에 들어와서는 前期의 질서정연하였던 直六角의 龜甲文이 점차 자유롭게 변해가고 다양해지며 각 龜甲文 내부를 花文, 王字文 등으로 장식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彫法도 前期에서는 深刻하였던 것에 비해 後期에서는 淺刻으로 대부분 龜甲文을 彫飾表現하는 彫風으로 변하고 있다.

### ④ 碑 座

前期 龜趺인 太宗武烈王陵碑 龜趺의 碑座와 四天王寺址 龜趺의 碑座, 金仁問墓 앞 龜趺의 碑座 등에서 는 一六瓣, 一八瓣, 二二瓣의 伏蓮瓣文이 陽刻으로 뚜렷이 나타나나 後期에 이르러서는 碑座 주변을 雲文과 蓮瓣

文을 혼용하여 表現함은 물론 높은 碑座의 各面에는 齋藏寺址龜趺의 碑座에서와 같이 十二支神像과 雲文을 表現하는 例도 있고 또한 月光寺址 圓朗禪師龜趺의 碑座와 禪林院址弘覺禪師龜趺의 碑座 등에서 碑座面에 眼象을 彫飾하는 例도 있다.

또한 聖住寺址朗慧和尚龜趺의 碑座에서는 眼象 속에 花文과 雲文을 彫飾하는 例도 있는가 하면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龜趺의 碑座에서와 같이 飛天像을 彫飾하는 例도 나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前期에서는 단순하고 소박한 彫飾方法이었으나 後期에 들어와서는 다양하고 화려한 彫飾方法으로 碑座의 各面을 장식하고 碑座도 높아지고 있다.

### ⑤ 龜趺足形態

前期 龜趺의 龜足은 대략 前足이 五爪, 後足이 四爪이니 前後足同하게 五爪로 彫刻하여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龜足形態로 표현하고 있으나 後期에 이르러서는 各 龜趺의 龜足 마다 三爪, 四爪, 五爪씩 등 다양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탈진하고 작아지고 있고 또한 한쪽의 足을 살짝 들고 있는 형태 등으로 刻出해 各 龜趺의 형태에 따라 龜足의 형태도 변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 ⑥ 螭首

統一新羅時代의 石碑 중에서 龜趺와 螭首는 가장 중요한 형식과 양식을 갖춘 것의 하나로 前期에 속하는 石碑螭首의 형태는 唐碑에서 바로 模倣한 圓圭, 圓首形式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例는 太宗武烈王陵碑螭首라 하겠다.

이 螭首에서는 唐碑에서 보이는 형식과 양식 그대로 暲할 갖추고 蟠龍 六마리가 蟠結하여 龍尾를 다른 쪽의 蟠龍 前足을 감고 後足 하나로는 日像을 표시하는 圓珠를 받쳐주고 있는 듯 완벽하고 박진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으나 후기에 들어와서는 전기와 달리 蟠龍과 雲文을 혼용하여 彫飾하면서 碑身을 물고 있던 蟠龍頭가 서로 대칭적으로 맞대어 표현하

고 있는 것과 또한 螭首 중앙정상에 장식한 화염에 쌓인 寶珠를 서로 爭珠하듯 龍頭를 쳐들어 조식한 것이 전기의 螭首와 다르다. 그리고 螭首 밑면에는 仰蓮의 蓮瓣文을 정연하게 彫飾한 것도 특색의 하나이며 螭首 중앙에 설정한 題額 주연의 문양 처리도 운문 등으로 장식한 것이 또한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螭首의 彫飾手法은 후기로 내려올수록 彫飾하는 彫法이 深刻으로 변하고 있다.

### ⑦ 龜趺의 座向

龜趺의 座向을 살펴보면 現存하고 있는 統一新羅時代 龜趺와 螭首의 형식을 갖춘 石碑는 대략 二基 정도 遺存하고 있으나 이중 一基가 집중적으로 경주와 月城郡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陵墓와 寺址에 散在 存되어 오고 있는 바 이들 龜趺가 위치한 방향은 특이하게도 西向 내지 西南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통되게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陵墓 앞에서나 寺址 등에 있는 龜趺가 西向 또는 西南向으로 놓여 있다 하는 것은 佛敎가 최성기로 융성하던 統一新羅時代의 時代的 배경을 감안한다면 龜趺의 安置座向이 西向 西南向으로 된 것은 西方淨土思想에 의한 阿彌陀如來를 信仰한 佛敎的 思想要素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⑧ 龜趺 및 螭首를 구비하게 되는 遠因

唐碑를 바로 모방한 신라 石碑의 龜趺와 螭首는 역시 中國의 漢代石碑에서 이미 四神圖에 보이는 玄武를 배치한 것과 南北朝時代의 南朝劉宋碑(AD 四五八)에서 蟠龍과 三足鳥와 蟾蜍를 日月象 내에 彫飾表現하고 있는 例 등이 표본이 되어 후세의 石碑에 까지 유래되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傳承한 唐碑를 모방함에 따라 螭首와 龜趺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한편 이 四神圖 배치는 이미 高句麗의 通溝四神塚, 眞坡里一號墳 등 많은 古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四神圖 배치는 中國 古代墓制에

서의 四神圖 배치에 영향받았다 함은<sup>20</sup> 이미 주지의 사실인 바 이 四神圖壁畫 중 玄武로 나타난 것이 新羅石碑의 龜趺와 螭首로 표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古新羅時代의 古典基本型의 石碑에서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면서 바로 唐碑模倣型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조형물의 발전과정에서 급속한 비약인바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의 移行과정에는 반드시 과도기적인 石碑發展과정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이와 같은 점은 아직도 究明이 되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볼 때 統一新羅時代 前期 石碑의 龜趺와 螭首 등은 唐碑를 模倣하면서도 모든 彫法이 古典的 형태를 갖추는 사실적 표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 九C서부터 一〇C까지인 후기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사실적 표현에서 탈피하여 위엄있고 다양한 환상적 표현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統一新羅時代 石碑의 龜趺와 螭首의 변천이라 할 수 있겠고 이것이 高麗時代의 石碑와 朝鮮王朝初期時代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註]

- ① 金元龍著 韓國美術史 第7節 石燈。碑石、其他石物 pp. 204, 汎文社刊 一九六八、四、三〇、
- ② 関野貞、支那の建築と藝術 支那碑碣の様式、岩波書店刊 一九四一、二、一〇
- ③ 伊東忠太、支那建築史 雄山閣版刊 一九三一、三、二〇。
- ④ 金富弼、三國史記 新羅本記 第10 僖康王條 先進文化社刊 一九六九、一二、一〇。
- ⑤ 黃壽永、考古美術 一〇八號(一九七〇) 新羅誓幢和尚碑의 新片 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七〇。
- ⑥ 洪思俊、考古美術第三卷 第七號(第二二號) 新羅文武王陵斷碑、韓國美術史學會刊。
- ⑦ 藤島亥治郎、朝鮮建築史論文集、慶州を中心とする新羅時代碑論 一九三三、一。
- ⑧ 李丙燾譯註 三國遺事 第三卷 第三卷 齋藏等彌陀殿 東國文化社刊 一九六九。
- ⑨ 文化財大觀 寶物編中 pp. 358 三和印刷刊 一九六九。
- ⑩ 鄭永鎬、新羅石造浮屠研究

- ⑪ 前掲書, pp. 53。
- ⑫ 前掲書, pp. 64。
- ⑬ 前掲書, pp. 102。
- ⑭ 鄭永鎬、韓國美術全集七 石造篇 pp. 138 同和出版公社刊 一九七三。
- ⑮ 前掲書, pp. 139。
- ⑯ 前掲書, pp. 137。
- ⑰ 前掲書, pp. 133에서는 統一新羅眞聖女王七年(八九三)경으로 부도의年代와 同一하게 보고 있다。
- ⑱ 前掲書, pp. 73。文化財大觀, pp. 364。
- ⑲ 前掲書, pp. 85。
- ⑳ 朝鮮金石總覽 上卷 pp. 98~101。金元龍、韓國壁畫古墳 pp. 67 一志社刊 一九八〇、五、五。